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2011년 겨울 제125호



이화동창

2011년 겨울 제125호



02	겨울의 시	첫눈 노천명
03	총동창회장 인사말	새해 맞아 더욱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조종남
04	2011 '이화인의 밤'	동창들 만남과 추억 나눈 풍성한 잔치
08	'아름다운 이화인상' 소감	하나님 은혜 보답하기 위해 신경희
10	특별 기획 좌담회	이화창립 125주년에 돌아보는 이화인의 밭자취 / 정계
15	축하합니다	이배용 이정현 김은주 정소희
16	앙케이트	2012 새해맞이 – 유중근 차경애 최금숙 신경림 박재은
21	'정트리오' 공연을 보고	하늘나라까지 올려퍼진 사모곡 유영선
22	기획 시리즈	노교수와 두려운 제자들 – 김숙희 교수와 그 제자들
26	기획 시리즈	우리는 이화가족 3대 최청규
28	기획 시리즈	김종국 교수가 주천하는 2012 이화 유망 작가 – 박유미
30	기획 시리즈	김선주가 만난 이화 예술인 – 소설가 권지예 김선주
34	이화 사워석	'동거' 와 '동락' 하는 기쁨 함께 나눈 46년 한완상
36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한여름에 맞는 크리스마스 박양미
38	그 때 그 시절 그 교정	사학과 졸업생이 독문과 조교로 왔던 사연 남재은
40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탐매 이명환
43	총동창회 소식	
49	대학소식	
52	과 · 학부 소식	
58	국내 · 해외지회 소식	
66	모교 소식	
71	동창 소식	
76	후원 이사회비 납부자	
77	연회비 납부자 명단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2011년 겨울 제125호 비매품 | 발행 · 2011년 12월 30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계간문예(02-3675-5633) | 디자인 · 박래우 편집공방(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신아인쇄

© 2011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첫눈

노 천 명

이화여전 문과 84

은빛 장옷을 길게 끌어
원 마을을 희게 덮으며
나의 신부가
이 아침에 왔습니다.

사뿐사뿐 걸어
내 비위에 맞게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내 마음은
오늘 노래를 부릅니다.
잊어버렸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잔을 높이 드시오
빨간 포도주를
내가 철철 넘게 치겠소

이 좋은 아침
우리들은 다 같이 아름다운 생각을 합시다



총동창회장 신년사

새해 맞아 더욱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회장 조종남 | 의학 75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이화동창 여러분!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해 ‘이화인의 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동창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같은 이화 동산에서 보낸 선후배 동창들과 추억과 즐거움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 처음 총동창회장의 책무를 맡고 ‘이화 창립 12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와 ‘이화 창립 125주년 기념 감사찬양제’를 비롯하여 ‘이화인의 봄’ 행사와 ‘아름다운 이화인상’ 시상까지 여러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동창들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말에 참석하였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동창들께서는 제가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화합과 열정과 사랑의 동창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 하실 겁니다. 이번에 저는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동창들께서 그러한 훌륭한 동창회를 만들고자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또한 Ewha 명칭의 사용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더욱 단합된 화합과 사랑의 동창회가 되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지난 해 11월 마곡의료단지의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이화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치열한 경쟁을 뛰어넘어 국내 제1의 첨단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교의 발전과 영광은 우리들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모교를 돋는 일에 모두 동참하고 협력한다면 ‘이화인’으로서 우리 자신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총동창회는 동창들을 위해 늘 한결같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용의 기상으로 높이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와 모교에 뜨거운 사랑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동창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 ‘이화인의 밤’ 행사

동창들 만남과 추억 나눈 풍성한 잔치

제 7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신경희 선교사 선정
모교 발전기금 3억 원 기증

2011년 11월 28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총동창회가 주관한 2011년도 ‘이화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펼쳐진 이번 ‘이화인의 밤’은 각 대학, 학부, 과, 대학원
동창 1천여 명이 참석하여 우정과 덕담을 건네며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1천여 명 동창들이 함께한 '이화인의날' 행사장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이 자리는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청춘시절, 4년 또는 6년을 같은 이화 동산에서 보낸 동창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함께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런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 이라면서 '오늘의 동창회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헌신하신 장의순, 주영희, 윤순희, 김순영 고문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모교에서 참석한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총장, 장상전 총장, 신인령 전 총장 등께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날 조종남 회장은 동창회에서 모금한 모교 발전기금 1억 원과 개인적으로 2억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하여 김선옥 총장께 전달하였다. 김선옥 총장은 모교 소식을 통해 '마곡 의료지구의 입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앞으로 이화가 그곳 의료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날개를 달고 비상을 준비하게 될 것' 을 동창들께 알렸고 조 회장이 이에 화답하여 '가장 최신의 기계와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갖춘 새로운 병원이 서울의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2011년 이화인의 밤

일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6시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유엔젤보이스' 중창단과 함께 한 작은 음악회

아니 전 세계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하여 참석 동창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날 제 7회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로 신경희(특수교육 84) 선교사가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 5백만 원을 수여받았다. 신 선교사는 지난 93년부터 17년 동안 네팔에서 부군 양승봉 외과 전문의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과 섬김의 봉사에 헌신해 왔다. 33세의 나이에 한국을 떠나 탄센과 카투만두의 낯선 땅에서 병원의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가난한 주부들을 위한 십자수 교실을 열어 그들을 도우며 네팔 여성들에게 다양한 요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또한 불교 국가인 네팔에서는 유일한 한인교회 여선교회 회장을 맡아 여선교회와 한인회가 주관한 한국문화축제(Korean Festival)와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신 동창은



장명수 이사장



조종남 회장



김선옥 총장

네팔 기독의사회의 출범으로 지금까지 좋은 공동체로 성장하게 만든 대모이기도 하다.

이제 51세의 나이가 되어 안식년을 맞게된 그는 많은 후배들이 선교지로 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또다시 모교 특수교육과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며 네팔 최초의 특수교사 양성 교육대학 과정 및 사립 기독학교를 시작할 꿈을 키우고 있다.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1천 여 동창들은 이 날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만찬과 멋진 남성 중창단 '유엔젤보이스'가 펼친 발레 공연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흥겹게 즐겼다. 특히 총동창회가 정성껏 마련한 개인 별 선물과 총 5백여 점에 달한 행운권 추첨 선물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1. 동창들에게 인사하는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정의숙 전 이사장, 김선옥 총장 2. 행운선물을 주첨하는 윤순희 고문과 장의순 고문

3. 자랑스런 이화동창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

4. 총동창회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네팔에 장애아 특수교육 기독학교 세우고 싶어

신경희 | 특수교육 84. 선교사

'아름다운 이화인상'은 세계 각지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많은 훌륭한 이화 선배님들을 생각할 때 제가 받기에 너무 큰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프로젝트도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도움을 주고자 걸어온 길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고, 이제껏 왔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며 상을 주시는 의미를 새겨 보았을 때 '제게 남은 인생도 고스란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에 외과의사가 필요하다는 부르심에 남편과 함께 지난 17년을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33살에 한국을 떠났는데 지금 50살이 넘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짚고 힘이 있는 왕성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팔은 힌두교의 영향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것은 전생의 죄의 결과로 큰 수치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바깥으로 내보이는 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

는 것과 같으므로 장애인을 집에 가둬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장애인을 위한 조그만 교육 센터를 지난 10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훈련하고 자격을 주는 특수교육 단과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수교사 양성 과정이 없는 네팔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재 이화 대학원에서 늦깎이 학생이 되어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회가 닿는 데로 네팔의 시골이면 시골, 도시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을 전하기 위해 십자수 교실, 요리 교실, 병원 전도 등 조금씩 저의 은사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후반전은 "장애인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공부하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네팔 현지인 특수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시작해 나가는 일"에 전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저에게 전달해주신 이화 동창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이화인의 밤

행운선물 기증 목록

1 정의숙 전 이사장	30만원 백화점 상품권	● 35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커피머신1대, 믹서기 1대
2 윤후정 명예총장	로봇청소기 1대	● 36 남덕자 영문과 동창	스카프 20점
3 장명수 이사장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 37 이주명 영문과 동창	10만원 GS상품권 20매
4 김선옥 총장	에스프레소 머신 1대	● 38 주연아 신방과 동창	고급와인세트 5점
5 조종남 총동창회장	삼성 허우젠 버블드럼 세탁기 1대	● 39 박수경 신방과 동창	서울백병원 건강검진권 2매
6 서현숙 의무부총장	목동병원 패트검진권 1매	● 40 최내경 불문과 동창	최내경의 '고호의집을 아시나요?' 책 50권
7 주영희 총동창회 고문	고급와인세트 1점	● 41 오재복 증음과 동창	오재복의 '테이블매너' 책 10권
8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LG디오스 냉장고 1대	● 42 서양화과 동창	그림 3점
9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LG 노트북 1대	● (이주은, 김효정, 윤경미)	
10 박유나 총동창회 부회장	와인 110병	● 43 도예과 동창(김미경, 김지혜, 김현수, 이지은, 김영은, 서우미, 이하원, 이해정, 이안숙, 민세원)	도자오브제 2점, 액자 1점, 도자장신구 5점, 도자기 2점
11 조경원 총동창회 부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매	● 44 손성혜 교육과동창	손성혜 한복상품권 1매
12 유희숙 총동창회 감사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45 최금숙 법학과 동창	장애우가 만든 천연비누세트 10점
13 손종수 총동창회 감사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46 송경애경영학과 동창	송경애의 '나는 99번 긍정한다' 책 100권
14 김효신 총동창회 총무	전동칫솔세트 5점	● 47 오기근 의학과 동창	혈찬금 300만원
15 이주희 총동창회 시기	고급 와인세트 1점	● 48 오혜숙 의학과 동창	오혜열의 '웃음에 희망을 걸다' 책 20권
16 박경임 총동창회 문화부장	유홍준의 '국보순례' 책 50권	● 49 이영숙 약학과 동창	코모도호텔 2인 1박 숙박권 3매
17 황인경 총동창회 사업부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50 흥리희 ALPS 7기 동창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대
18 김선애 총동창회 재정부장	5만원 백화점 상품권 6매	● 51 박술녀 ALPS 14기 동창	꽃무늬 무명 손수건 10점
19 이경옥 총동창회 회우부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52 두리회장풀	댕기머리 진기헤어케어세트 10점
20 유영선 총동창회 홍보부장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	● 53 롯데백화점	10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매
21 위성숙 총동창회 지역부장	탈모관리용샴푸토닉5세트, 영양제 10세트	● 54 비핸즈아트(바른손카드)	명품판회 3점
22 자연숙 총동창회 선교부장	생활자기세트 1점	● 55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목동병원 건강검진권 5매
23 김혜원 인문대학 동창회장	에프로 머프리 10점	● 56 인터컨티넨탈호텔	2인 부페식사권 3매
24 이양준 사회대학 동창회장	스카프 1점	● 57 주)샘표식품	백년동안 발효흑초
25 이숙자 자연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58 주)일양약품	산수유석유 기획세트 1,000점
26 방명혜 음악대학 동창회장	필립스 무선주전자 5점	● 59 주)청정원	프로폴리스치약 1,000점
27 정현숙 조형대학 동창회장	그림 1점	● 60 한국3M	청정원스파게티세트 1,000점
28 이영란 체육대학 동창회장	휴롬천연원액기 1점	● 61 한국도자기	아이피워시구강청결제 1,000점
29 박관순 법과대학 동창회장	판화 1점	● 62 총동창회	단반상기 2세트, 7첩반상기 1세트
30 정중자 경영대학 동창회장	마스크팩 200점		수첩, 달력, 건강무릎벨트 각 1,000점
31 배순희 의과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2매		
32 김진향 간호대학 동창회장	5만원 백화점 상품권 6매		
33 정준순 약학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34 이경희 생활환경대학 동창회장	이기조 교수 도자기 2점		



특별 기획 좌담회 | 이화 창립 125주년에 돌아보는 이화인의 발자취 / 정계

정치는 사회적 약자 위한 봉사 앞선 여성, 도전의식 가르친 이화 교육 덕분

2011년 12월 2일 총동창회 회장실에서 이화 창립 125주년을 맞아

이화인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좌담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여성 지위 향상에 공헌하며 국정에 봉사하고 있는 신낙균(기독 63) 국회의원,

이배용(사학 69)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김금래(사회 75) 여성가족부 장관이

함께 자리하여 오늘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앞으로 정계에 입문할 후배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될 세 분 동창의 이야기는

우리 18만 이화 동창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이야기일 것이다. 편집자 주

진행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정리 백수경(신방 79, 이화동창편집위원)

배석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 김효신(의학 84, 총동창회 총무) 사진 이은봉(올리브스튜디오 대표)

* ‘이화동창’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교 창립 125주년을 맞아 모교를 빛내고 동창과 후진들에게 귀감이 된 자랑스러운 이화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이번 좌담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계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그동안 여러 분들 모두 많은 일을 하셨지만 국정에 참여하고 취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소감과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작년 7월 말 총장 임기를 마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9월 29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위원장의 소명을 받았을 때 평생 한국역사를 전공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듯 하고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선뜻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 후부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리에서 고품격 궁중 문화로 프랑스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정말 너무 보람 있습니다.

김금래 장관 9월 16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어 청문회와 곧 이어 국정감사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NGO 활동을 하다가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활동이 ‘정책에 대한 건의와 비판, 방향 제시’라고 한다면 행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낙균 의원 정 치인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독교학과를 다니며 이웃 사랑과 기독교 정신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제 성격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다녀와서 모교의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을 때, 당시 이효재 교수님 추천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한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다가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으니 벌써 15년이나 되었네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NGO 활동이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흔적이라도 만들어간다면, 정당 활동은 ‘돌로 바위치기’라 할까요? 반면에 행정부 일은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행정부에 있어보니 집행부는 역시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 125년의 역사를 가진 이화에서 배출한 많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화의 기질’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배용 위원장 이화의 기질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유롭고 열정적인 도전의식이라 할까요? 거기에 봉사와 사랑, 공지, 책임감 등이 함께 어울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역사의식이 투철하면서도 글로벌화에 앞장 설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는 특별함이 이화의 교육에 있습니다. 제가 총장일 때 주인 의식과 전문성, 그리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자는 ‘주전자정신’을 강조하곤

했지요.

신낙균 의원 이화 동창들은 직장과 사회에서의 적응력과 자신감이 정말 탁월합니다.

김금래 장관 졸업 후 보니까 남녀 공학 여학생들이 더 의존적인 반면, 이화 동창들은 여성들끼리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 어떤 일을 할 때 여자라서 못한다는 선입견이 없고 자연스레 리더십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여성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걸 깨달았고, 앞선 여성의식 도전의식을 이화에서 배웠습니다. 전 이화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 고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나 못 다한 국정 활동이 있으신지요? 새해의 계획과 포부도 듣고 싶습니다.

이배용 위원장 항상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렇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을 보내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파주 캠퍼스 백지화 일로 통일이 되면 철로를 통해 시베리아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화의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국가브랜드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원조 받았었던 나라에서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확실히 인식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봉사하는 대한민국으로서 밝고 친절한 국민 이미지를 발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문화 콘텐츠화도 그 일환이 될 것입니다.

신낙균 의원 저는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파워 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무와 경제가 외교의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면 여기에 문화가 더해져서 외교를 받쳐주는 세 기둥으로 확립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낙균 의원 (기록 63)

소프트파워 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무와 경제가 외교의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면 여기에 문화가 더해져서 외교를 받쳐주는 세 기둥으로 확립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사학 69)

봉사와 사랑, 궁지, 책임감 등이 함께 어울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역사의식이 투철하면서도 글로벌화에 앞장 설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는 특별함이 이화의 교육에 있습니다

으로 확립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에 진출했던 15대 국회가 ‘평등과 나눔’을 지향했다면 현 18대 국회는 여기에 ‘돌봄’이 추가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금래 장관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확립,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인권보호 등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며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지금의 나’가 되기까지 멘토가 있으십니까?

이배용 위원장 제 전공이 한국 역사라서인지 열악한 환경을 뚫고 시대에 맞는 큰 역할을 했던 선덕여왕, 신사임당, 세종대왕, 임윤지당 같은 분들을 존경하고 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석계부인

안동 장씨는 ‘음식 디미방’이라는 한글요리책을 쓰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스크랜턴, 김만덕, 류관순, 김활란 선생님도 제게 큰 귀감이 되신 분이었구요.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지식보다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성과보다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둔 어머니와 아내가 존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뚜렷하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낙균 의원 시골 출신인 제게 꿈을 주셨고 이화여대 진학을 권하셨던 여고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 처음 멘토셨어요. 대학에 와서는 존재 자체로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던 김옥길 선생님의 신용에 대한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신뢰의 시작’이라고 늘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김금래 장관 전 아버지께서 맏 딸인 제게 기대가 많으셨고, 여자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고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선각자이신 나혜석, 이태영 선생님을 존경하고,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모셨던 김경오 회장님(여류비행사)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 **모교와 총동창회에 대한 조언이나 앞으로 정계에 입문할 후배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래 장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봉사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문성과 용기, 이타심을 갖춘 이화동창들이 더 많이 정계에 입문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화동창들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 받은 계층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낙균 의원 정치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일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봉사하는 인품과 도덕성을 갖추고 나만의 전문성을 갖춘 후배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초조하면 비겁해진다.’ 던 김옥길 선생님 말씀이

김금래 장관 (사회75)

전문성과 용기를 갖춘 이화동창들이 많이 정계에 입문하길 바랍니다. 이화동창들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 받은 계층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납니다. 정치를 하다보니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계속적인 정진을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앞으로 학교와 동창들을 위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더욱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배용 위원장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다 보면 차츰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미래에 대한 사명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재로 이화동창들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사랑과 정이 넘쳐 흐르는 총동창회가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세 분 모두 나라 발전을 위해 정치계에 새 역사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라며 총동창회도 할 일이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축하 합니다



이배용(사학 69)동창 ‘김활란 여성 지도자상’ 수상

2011년 11월 4일 이배용 동창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제정한 ‘김활란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대회장인 故 김활란 박사의 뜻을 기리고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헌신한 여성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모교 제 13대 총장을 역임한 이 동창은 역사학자로서 여성 사발굴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평생을 교수로 여성 전문인 양성에 진력하여 여성 인재의 세계화 및 여성의 역할 증대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정현(문현정보 76)동창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2011년 10월 5일, 제5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이정현(영문 이름 Joy Kim) 동창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미국 남기주대학교 한국학도서관(Korean Heritage Library) 관장으로서 도서관을 통해 해외 한국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이 동창은 26년 전 ‘한국학’의 불모지인 북미 지역에서 한국학을 알리기 위해 저술 및 학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김은주(특수교육 85) 동창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취임

2011년 8월 1일 김은주 동창이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동창은 현장을 잘 아는 한국 특수교육 분야의 관리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동안 특수학교 및 특수 학급 교사를 거쳐 97년부터 14년간 교육부 및 교과부에서 연수과장 및 특수교육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정소희(작곡 89)동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모교 공연예술대학원 음악예술경영 전공 초빙교수인 정소희 동창이 2011년 11월 1일, 제46회 잡지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그 동안 정 동창이 음악공연 기획 및 음악 예술 교육 등을 통해 음악계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해 오고 있는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자랑스런 이화 동창의 2011 마무리

2012 새해맞이

이화창립 125주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우리에게 '자랑스런 동창'으로 기억되는 이화인들에게 2011년을 보낸 소감과 2012년 새해 계획을 들어본다.

1. 2011년에 가장 기쁜 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2. 대외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수장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취임하실 때의 소감은?
3. 2012년 새해 계획과 포부를 들고 싶습니다.
4. 총동창회와 동창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유종근 (영문67) 대한적십자총재

(현)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적십자사 본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
(전)재단법인 우월 김활란 장학회 감사, 학교법인 이화학당 감사,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회 동창회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1. 한 해를 돌아보면,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이 모자이크처럼 남아있습니다. 그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2011년 제게 14년간 봉사원으로 몸담아온 대한적십자사에서 올초 부총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눈덮힌 남산길을 오가며 새해 소망과 다짐을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덧 다시 새해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결심과 바램을 모두 실천하기도 전에 10월 14일에 27대 총재로 취임하였습니다. 집무

를 수행한지 이제 두 달여가 되어가지만 2011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입니다.

2.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된지 올해로 106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첫 여성 총재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일을 넘어 적십자사 역사의 한 일원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느낍니다. 총재는 어떤 권한보다는, 나라 안팎에 어려운 많은 분들을 돋고 보듬고, 또 적십자 일원들을 챙겨야 할 책임이 큽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3. 요사이 '소금'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 등의 웰빙식단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소금' 없는 음식을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음식의 간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금. 그러나,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내는 소중한 소금을 닮고 싶습니다. 힘찬 희망이 솟아나는 새해, 대한적십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사랑과

봉사의 참맛을 내고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금이 되기를 조용히 다짐해봅니다. 이러한 적십자 임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고결한 마음이 모두한데 모여 우리사회 나눔문화의 참맛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4. 우리 이화인 한분한분에게도 자원봉사자의 착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아질 때 우리는 나눔의 기쁨과 건강한 사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당장 3만, 4만불 국가가 되진 못하지만, 우리는 그 2만불을 바로 쓰고, 나눌 수 있는 기회와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용기를 내시면 자원봉사와 나눔의 창의적인 행복한 미래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의 봉사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2012년이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차경애 (신방 66) 한국YWCA연합회 회장

(현)사회복지법인 충북아동원 이사,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전)한국YWCA연합회부회장,)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위
원 및 공동대표,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 운영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평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강사(사회복지)

1.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지난 10월에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된 것입니다. 30년 동안 한국YWCA연합회 실무자로, 그리고 14년간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YWCA에서 배

웠습니다. 대학졸업 1년 후 학과장님께서 “YWCA에서 실무자를 추천하라고 하니 가보라”고 하셨을 때 YWCA가 기독교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나는 무조건 갔습니다. 일하면서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사회운동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가를 경험했습니다.

2.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출해주신 대표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YWCA는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생각을 모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회원들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회원들의 생각을 모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여성직업훈련을 통해 배출된 분들을 돋는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4. 모 교동창회는 18만이라는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막상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너무 적습니다. 저도 1998년부터 1년 동안 총동창회 총무를 맡았었는데 동창회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반 회원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창회원들이 모교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최금숙 (법학 7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현)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이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전)법무부 남북특수법령위원회 위원, 국제청국세심사위원회 위원

1. 2011년에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에 다문화가족법률상담센터와 북한이탈주민법률상담센터를 열고 센터 간판을 단 일입니다.

이화여대 법대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해 온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기쁩니다.

2. 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은 첫째도, 둘째도 여성 일자리입니다.

이 어려운 일자리를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떠난다는 사실과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초로 여성 일자리 만들기 및 일자리 지키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일이므로 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양성 평등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고 특히 모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의욕적으로 일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화여대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지내 아쉽긴 하지만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2011년 원장 취임 후 앞으로의 임기 3년 동안의 청 사진을 세우고, 직원들과의 소통하기 위해 원장실문을 활짝 열고 대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젠더(Gender) 관점(남녀의 성별에 따른 관점) 연구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좀 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노력하면 명실상부 한 세계 최고의 연구원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12년 새해에는 이를 비롯하여 여성 인권, 일자리, 평등문화, 안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性認知豫算, Gender Budget), 성인지 통계 등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여성정책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 사업들을 수행하고 이를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제가 장으로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함께’ 모두를 위한 조화로운 사회 및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교가 여자대학이고 동창들이 모두 여성이며 총동창회에서 앞장서서 18만 동창을 위해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또한 여성정책 및 젠더 정책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와 동창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신경림 (간호7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현)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
이사장, 이대 건강과학대학 학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1부회장
(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

1. 29만 한국 간호계의 대표인 대한간호협회장으로서, 또 한국간호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으로서 정말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2008년 2월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선출된 이후 간호의 전문성 향상과 간호사 권리옹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40년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의 토대가 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2. 2011년 3월에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이사장에 선출돼 대외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시원은 보건의료 관련법령에 의거해 의사, 간호사 등 총 23개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보건, 의료와 관련된 시험을 관장하고, 시험 제도를 조사·연구, 개발하는 전문기관이지요. 임기 동안 국시원을 더욱 큰 발전된 조직으로 성장될 수 있

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3.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 처우의 경우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환자안전은 간호의 핵심입니다. 간호사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내년에 안전한 간호를 실현하는데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또 29만 간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간호교육 4년제 완전 실현을 앞당기는 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간호사 직종을 포함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시험을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현행 국가시험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험시행 기능과 연구수행 기능을 복합적으로 균형 발전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4. 우리 이화인은 125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이화인의 열정을 가지고 공지와 보람을 심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세계는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화인의 도전정신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는 이화인 모두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Ernest Miller Hemingway의 말을 가슴 깊이 품고자 기개발을 위해 열심히 함께 뛰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박재은 (작곡 8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집행위원 및 국제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연구소 심의위원, 베이징올림픽 기념한·
중문화교류 음악제 기획위원장,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문화교류
기획위원장 예술의전당 자문위원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기관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일을 행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바로 그 점이 저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가로서, 교육자로서 저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회를 만들 꿈꿔왔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공교육부터 시민교육까지 그리고 계층별, 역별로, 그야말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야 말로 제가 항상 꿈꿔오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실천방법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2011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2. 준비된 기관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기관장 공모를 앞두고 제 나름대로 많은 자료 조사하며,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이 되었을 때 자신감도 함께 고취되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비전, 국민이 원하는 정책 수

요, 기관의 정책 실행력,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이 저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취임 소감이었습니다.

3. 2011년, 기관장으로 임명된 후 6개월 동안은 '박재은호(號)'를 출범시키기 위해 뜻을 재정비하고 선원들과 호흡을 맞추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12년은 준비한 뒷을 팽팽하게 옮리고 저와 직원들이 한호흡, 한 목소리로 움직이며 출항을 해야 할 해입니다. 2012년에는' 창의성 '을 키워드로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층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12년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할 핵심 업무입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전문인력 연수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국가 전반 문화예술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2012 임진년은 황제의 기운이 겹쳐진 아주 상서로운 해라고 합니다. 이화총동창회와 동창 여러분이 소망하는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큰 생각과 나눔의 정신도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그 실천이 모여 이화인 전체의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



3

1. 연주에 환호하는 청중에 감사하는 정트리오
2.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하여’ 공연장
3. 정트리오와 함께한 생전의 이원숙 동창

정트리오의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하여’ 공연을 보고

하늘나라까지 울려 퍼진 절절한 사모곡

구립 13일 오전 11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트리오의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하여’라는 특별한 음악회를 보고 나는 이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화(첼로), 정경화(바이올린), 정명훈(피아노) 남매의 공연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커지만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나는 기억 속에 묻어둔 나의 어머니를 잊었던 때의 깊은 상실감이 되살아나기 시작함을 느꼈다.

정트리오의 연주 속에 배인 어머니 故 이원숙 여사(가사 39)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대강당 2층을 꽉 채운 모든 동창들 가슴에 울려 퍼졌다. 한 곡 한 곡마다 그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연주했고 3천 명 청중들 역시 그들의 감성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故 이원숙 동창의 열렬한 자녀 사랑이 세 자녀의 음악을 통해 우리들 마음에 어머니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 날 음악회는 “어머니 추모 음악회를 어머니의 모교이자 어머니가 음악 사랑을 키운 이화여대에서 하고 싶다”는 정트리오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정트리오라는 이름을 내건 공연으로는 2004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한다.

1950년 한국 전쟁 속에서도 자녀의 음악 재능을 위해 피아노를 짚어지고 피란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故 이원숙 동창.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펼친 이번 연주회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한자락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故 이원숙 동창은 1995년 제1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5월 향년 93세로 타계하였다)

(글. 유영선(총동창회 홍보부장))

건강한 사회 창조 위한 영양학의 선두주자 김숙희 교수와 그 제자들



왼쪽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이갑희, 백추혜, 이정순, 김현규, 조인자, 최수주, 박경임, 최길자, 김영희, 최남숙동창, 김숙희 교수,
이영자, 한성숙 동창

노교수의
회상

제자들은 친구이자 동반자

김숙희

현재 이대 명예교수 (가정학과 11회, 1960년 졸업),
한국 식품영양재단 이사장,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유관순교육사업회 이사장, 전 교육부장관

1965년 9월 7일 정오 쯤 김포에 도착하였다.

1961년 2월에 도미해서 4년 7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다. 모든 통관을 마치고 마중 나오신 어머님을 뵙고 무언라 할 수 없는 반가움에 떨떨 뛰었다. 집이 돈암동이어서 김포를 출발해 집에 가는 길에 신촌을 거치게 되었다. ‘이화여대 입구’라는 길 표지판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께서도 학교에 잠깐 들러서 선생님들께 귀국인사를 잠깐 들이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에 학교를 들러서 학장실로 향했다. 학장 선생님 말씀이 마침 3시부터 당신 수업이라 학생들이 기다린다

고 잠깐 가서 학생들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하셨다. 이대 교수직의 첫 걸음을 이렇게 시작 되었다. 1960년 2월에 이대 학사모를 썼다. 그리고 대학원으로 진학할까 하여 4학년 1학기 말에 당시 부장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말씀에 조금 놀랐다. 여자는 대학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인 즉 “당신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했다고 이대 교수 될리는 만무이고, 한국 사회를 보건대 고학위 소유자는 취직 길이 좁을 뿐 아니라 결혼 상대를 구하는 범위도 좁다”고 하셨다.

그분의 속칭한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좀 분개를 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두 맞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대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나니 대신 평소 들어보던 미지의 미국 대학원에 진학해보려는 욕망이 솟구쳤다. 을지로 입구에 존재하고 있는 미국 공보원 도서실에서 영양학 분야에서 Ph.D를 수여하는 학교 이름을 골랐다. 미국 대학에서 투른 영어로 첫 편지를 날렸다. 기숙사 비를 포함해서 등록금까지 주겠다고 Texas 여자대학교에서 답이 즉각 날라왔다. 그 편지를 받고 설레임에 눈물이 다 날려고 하였다. 그래서 국내에서 요구하는 유학절차를 밟아서 1961년 2월에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1964년 8월에 Ph.D를 마치고 Post Doctor 연구원 생활을 겨우 1년하고 있는데 이대에서 들어오라는 명이 왔다.

그 당시는 미국에 머물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권유와 미국 지도교수 그리고 이대 가정대학 창설자 이신 miss Hariett Morris 선생님의 권유에 귀국

을 결심하였다.

대학 졸업 후 5년이 채 안되어서 조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을 처음 대하니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친구 같았다. 현재도 그 당시 졸업생과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 그들로부터 살림살이의 지혜를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이후 37년 8개월간 학기마다 9학점씩을 강의하고 때로는 12학점도 하였다. 영양학이라는 간단한 학문을 소개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이대에서 ‘열심’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이 어찌 되는지도 돌아 볼 겨를도 없이 그저 매년 수강하는 총명한 학생만 나는 것을 주기로 살다보니 어느새 ‘정년’이라는 끝이 나타났다. ‘정년’이 되기 전에는 늙음이라는 기분도 몰랐고 늙음은 나하고 관계없는 현상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막상 정년을 하고 보니까 정년 즉 시기다리는 것은 늙음이었다. 이제는 늙은 노파로 자처하면서 편안하게 자주 자주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

김숙희 전교수



원칙적이고 성실함 강조한 스승

최남숙 | 65년, 전 성신여대 교수

오늘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오게 만든 것은 이화의 기독교 정신과 가르침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가정대학 교수님 중 김숙희 교수님의 따뜻함과 원칙적이고 성실성을 강조하신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봇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노동력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현재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부재는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들에게 교양, 예절, 정신교육, 영양지식, 육아 등을 가르쳐서 올바른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한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려면 가정대학을 복원하여 가정과 교육을 초·중·고·대학에 확산시켜 원만한 인격체를 양육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천재성에 입을 모아 감탄

최길자 | 65년, 전 동구학원 이사장

1970년으로 기억하는데 교육대학원 전공 과목인 식품영양학 시간에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어서 논문 지도까지 받게 되었다.

30세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오신 선생님의 천재성에 모두 입을 모아 감탄하던 선생님이셨

는데 1965년에 졸업한 나로서 수업을 듣게 된 것만도 정말 행운이었다. 더구나 논문까지 지도받게 된 것이다.. 흰쥐를 기르면서 실험 분석하여 단백질이 흰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3주간 길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해부하여 각 장기를 떼어 내어 여러 방법으로 실험하는 중 실수로 그동안의 자료 모두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때의 낙담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이 일을 어찌하나' 하는 걱정으로 눈앞이 깁깝했다. 선생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흰쥐를 다시 출 테니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다. 뜻하지 않은 선생님의 격려에 그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험을 잘 마쳐서 논문을 완성하였다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후원

이영자 | 65년, 서예가

졸업반 마지막 학기의 강의를 맡으신 젊디젊은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중간시험을 치룬 후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 실망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들은 많은 수가 재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그 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겐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셨다.

졸업한 지 45년이 지났어도 선생님의 첫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는다.

패기와 실력 모두 갖춘 선생님

이갑희 | 66년, 주부

선생님께서는 1965년 9월 학기 시작에 부임하셨다.

소문대로 아주 젊고, 패기 넘치시며, 실력을 두루 갖춘 선생님이셨다. 우리들에겐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과의 문화적인 충격’ 이상으로 신선하고 충격이었다. 근래에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 ‘유관순 교육사업회’ 등 가까이에서 자주 뵙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항상 책과 가까이 하시며, 매사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정도 많으시고 추진력도 겸비하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열강하시는 모습에 감동

김영희 | 69년, 전숙명여고교사

강의실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수업이 끝나면 정신이 다 얼얼해질 정도였고, 우리들 공부 안한다고 얼마나 다그치셨는지, 그게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선생님께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극단적으로 싫어하셨고, 시험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시험이 끝나면 온몸의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학창시절이 끝난 지 어언 50년이 다가오는 지금도 내게는 제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진 선생님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제자들의 굿은 일에는 발 벗고 나서는 선생님의 정열에 감동을 받는다. 앞으로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스승으로 남아계신 분이다.

한번지도교수는 영원한지도교수

최수주 | 영란, 75년, 국제존타클럽 회원

한번 지도교수는 영원한 지도교수라는 말…과연 맞는 말일까요? 선생님의 영양학 시간은 그 엄청난 에너지와 속도에 팔이 떨어져라 필기하고, 영어

단어 찾아가며 원서를 복습하던 놀라운 시간들이었다. 1977년에 석사학위를 받은 후 그 당시에 새로 운학문으로 자리잡던 여성학에 관심을 갖자 선생님께서는 ‘우선 자신의 분야에서 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올려야 한다’는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고,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내게 이대에서의 첫 강의를 주셨다.

그 후 여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크나큰 제자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장관님으로 바쁘실 때도, 매년 송년모임은 교수님 댁에서 하며, 항상 한복을 곱게 입으신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담그셨던 계장 맛 또한 잊지 못할 추억들이다.

현재도 또 앞으로도, 영양재단과 교육사업회 이사로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 곁에 가까이 머물고 있으니, ‘한번 지도교수는 영원한 지도교수’ 정말 저에겐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본관이 된 옛 가정대학 앞에서



우리는 이화 가족 3대

3대째 내려온 긍정적, 낙천적 진취적인 이 힘은 ‘이화’

최청규 | 영문 65



이화동창 3대가 함께 1대 방숙자(가사 42), 2대 최청규, 3대 꽈상희(영문 92, 뒤 오른쪽)

나의 엄마 방숙자 여사는 1919년 기미년에 태어나셔서 1942년에 이화여전 가사과를 졸업하셨다. 그 딸인 나 최청규는 1943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그녀의 딸인 꽈상희는 1969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1988년도에 역시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하여 1992년에 졸업을 하였다.

엄마는 일제 시대에 태어나셔서 일본식 교육을 받으셨고 8.15 해방과 6.25 동란과 그 후의 여러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오셨다. 그 엄마의 딸은 해방 직전에 태어나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를 거쳐 4.19 와 5.16과 10.26 사태를 경험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화과정과 그에 따른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딸은 대학 입학 때 88 올림픽을 즐겼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가로 돌입하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다.

엄마는 철학을 전공하는 아버지(최재희 교수, 서울대)를 만나 철학자의 아내로서, 대가족의 큰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아오셨다. 그 딸은 경영학 하는 남편(곽수일 교수, 서울대)을 만나 자아 실현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그녀의 딸은 사회학 하는 짹(서우석 교수, 서울시립대)을 만나 직업도 가져보고 가정도 돌보며 살고 있다.

엄마는 ‘이화 캠퍼스’라고 하면 우선 돌 벽돌이 고색 창연한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떠오른다고 하신다. 이화여대 입구에서부터 하이힐을 신고 걸어 야만했던 대강당 언덕 길과 본관 앞 길이 떠오른다. 딸은 후문 옆의 학관에서 왔다 갔다 한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요즈음 운동장 사이로 새로 만들어진 울트라 모던 캠퍼스를 걸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선 3 모녀가 각자 교수(물론 교수가 되기 전부터 살아왔지만)들과 결혼하여 대체적인 생활의 틀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3대 모녀의 혈액형도 모두들 O형이라 소심하게 눈치보지 않고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엄마는 여행을 좋아하셔서 ‘여행할머니’란 별명에 걸맞게 90이 넘은 연세인 몇 달 전에도 일본 여행을 다녀 오셨다. 오죽하면 지난 달 할머니 생신 때 손주들이 정성을 모아 I-Pad를 사드렸는데 할머니 ID를 ‘travelbang’으로 넣어 드렸을까.

엄마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소

통하려 하시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시는 편이라 요즈음은 미국, 독일, 스웨덴 등지에 흘어져 사는 손주들과 아이패드로 화상통화하시고, 나도 아침 저녁 화상통화로 문안을 드리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사진찍는 것도 좋아하셔서 사진을 찍어 손수 인화하여 주곤 하신다.

그 딸인 나도 디지털카메라, 아이폰, 아이패드를 열심히 사용하여 우리 가정의 신속하고 충실한 리포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상희도 대학 졸업 후 IBM에서 일한 경력으로 모든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모든 의문과 문제점에 대하여 훌륭한 조언자 노릇을 하고 있다.

3대를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 궁정적이고 낙천적 이면서도 진취적인 이 힘은 ‘이화’가 우리에게 준 좋은 덕목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며, 엄마도 더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먼 훗날 우리 집의 유일한 손녀딸인 나의 막내 딸의 딸 윤지까지 4대 동창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왼쪽부터 딸자의 부군인 꽈수일 교수, 둘째딸 꽈상진, 딸자, 어머니, 큰딸 꽈상희 동창, 사위 서우석 교수

기획 시리즈 | 김종구 교수가 추천하는 2012 이화유망 작가

조각가 박유미 소통불가로 관람자의 발아를 유도하는 작가



탈색의 정서 아스팔트, 조명장치 가변설치 2010[2]

내가 대학원 수업에서 박유미를 처음 가르쳤을 때, 그녀가 보여준 작업들은 나에게 그리 강한 첫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감정이 절제된 모노톤의 이미지, 건조하리만큼 무심한 시선은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작품은 오해를 생산하는 매개일 뿐, 그것이 소통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극적이고 혼浊적인 주제로 알기 쉽고 전달하기 쉽게 표현하기 쉬운 짚은 작가들의 접근법과 뚜렷이 구분된다.

비디오와 설치, 사진과 조각을 넘나드는 그녀의

작품들은 ‘인간은 외부세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타자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소통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진다. 모두가 소통을 갈망하는 시대에 박유미는 오히려 소통 불가를 단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소통 불가의 전제에서 출발한 그녀의 작업이 오히려 풍부한 오해들을 낳는다는 점이다. 빛과 색, 리듬과 음만 남긴다거나, 주제가 담긴 발화를 중첩하여 소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등,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는 작가의 특징 때문이다. 또 서사가 잘려나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은유적인 공간을 만들어 관람자가 스스로 발화하도록 만든다. 말하자면 그녀의 작품들은 대본은 없고 무대만 있는 공간과도 같다. 언어적인 개념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관람자 스스로가 그 작품의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소통 불가와 그를 대체하는 오해의 코드들이 박유미 작품의 전제라면 그녀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바는 바로 ‘죽음’이다. 생물학적인 죽음, 물리적인 소멸의 극점에만 국한되는 죽음이 아니다. 관계의 단절과 고립, 의미의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극점을 향해 가는 과정들이 그녀의 작품에서는 죽음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박유미의 단채널 비디오 작품 〈What a wonderful world〉는 이러한 그녀의 표현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 있다. 폐허처럼 쌓여진 모래 첨탑들이 화면에 등장했을 때, 나는 그 모래 첨탑들이 마치 주검과 같이 느껴졌다. 영상과 함께 재생되는 동명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까지 아이러니를 더하니 스산한 결말의 허망함이 더욱 배가된다.

박유미는 번뜩이는 감각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작가는 아니다. 이는 그녀의 작업이 분출이 아니라 깊이 파고들어가는 의식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박유미 스스로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심연의 감정을 건드리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스승이자 선배 작가로서 진심어린 격려를 보낸다.



제자와 스승.

김종구

이대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교수

2011 'Though I am confessing'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10 'Mobile Landscape' Spencer Museum, 미국

2007 '풍경'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7 Re-Imagining Asia, House of World Cultures, 베를린

2006 광주비엔나레, 광주

2002 김세중 청년 조각상

2002-03 P.S.-1 International Studio Program(MoMA), 뉴욕
수상/ 1990 제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박유미

2007 이대 조소 전공 졸업

2010 이대 대학원 조소 전공 수료

현재 이대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조교수

개인전

2010 탈색의 정서, 무이 갤러리, 서울, 한국

그룹전

2011 RETRO, 덕원 갤러리, 서울, 한국

2010 소통의 코드, 갤러리 반디, 서울, 한국

2010 언어놀이,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2009 young artist, 갤러리 서호, 경기, 한국

2008 Touch, 갤러리 mayshow, 경덕진, 중국

2008 Domino Effect, 이화아트센터, 서울, 한국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수상한 감각적인 소설가 권지예 (영문 83)



이상문학상시상식

* 안녕하십니까? 같은 길을 가는 문우이면서 권지예 선생의 소설 애독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1997년 라벨룸에 단편소설 <두 개의 꼭두각시 인형> <상자 속의 푸른 칼>로 등단한 이후 2002년에 제 26회 이상문학상, 2005년에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등단 10년까지는 신인이라고 하는 문단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을 너무나 빨리 타셨는데, 그준비기간이 궁금합니다. 어린시절과 학창시절,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소설가가 되기 전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소설을 좋아했지만, 숙명여고 시절 ‘숙란’이라는 교지의 기자를 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고, 2학년 때 장편소설을 써보기도 하면서 작가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대 영문과에 들어왔을 때, 자유롭게 글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화문학회’라는 서클에 들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소설을 썼어요. 대학 3학년 때에는 ‘다락방’이라는 동인 그룹에서 외부의 문청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학 공부를 했어요. 그때 미학을 전공하며

시를 쓰던 남자 친구와 만나서 사랑을 하기도 했구요.

4학년이 되어 단편소설 <뜨거운 포말>로 이화문학상을 탔고, 이대학보사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로 <파꽃>이 당선되기도 했어요.

* 이대에 다닐 때부터 이미 작가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군요. 그럼 왜 그때 작가로 등단하지 않았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대 문인들도 만나보고 좀 더 실력을 쌓기 위해 출판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박봉이고, 직장 일로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싶었어요. 소설을 쓰려면 차라리 순위고사를 보고 교사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시를 하여 합격하고 나서 교사가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하는 소설을 쓸 시간이 없고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뭔가 아쉽고 안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미술계통의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자는 제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만의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프랑스 파리라는 곳에 대한 호기심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곳에서 또 7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고생스러웠지만, 국립파리 7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충만함보다는 또다시 알 수 없는 허전함으로 원점에서 있는 듯이 막막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제가 소설이라는 창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꽉 차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저자사인회

* 권지예 소설가는 타고난 끼와 재능을 가진 천부적인 예술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술가는 자신만의 창작활동을 하지 못할 때, 아무런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이상문학상을 받은 <뱀장어 스튜>와 동인문학상을 받은 <꽃게무덤>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뱀장어 스튜>는 저의 5번 째 작품입니다. 등단한 이후 아무 곳에서도 청탁이 오지 않아서 몹시 우울했어요. 어느 날 피카소가 ‘여자에 따라서 화풍이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특집 화집을 보다가 79세에 만난 자클린이라는 여자가 뱀장어 스튜를 끓이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순간 번개같이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소설 제목으로 써놓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엮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제목만 쓰고 그냥 맹개쳐 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논문을 완성해서 프랑스를 다녀오고 나서도 작품의 줄거리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구들과 제부도로 놀러갔다가 교통사고가



이청준소설가와 유종호 문학평론가와 함께

나서 4달 반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우울하고 무료했기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병원 침대 위에서 그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그 작품이 몇 년 동안 이곳 저 곳에서 반송되며 실리지 못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현대문학에 보냈는데 신선한 작품이라는 칭찬을 받고 신게 되었어요. 작품 구상에서부터 발표하기까지 4년에 걸쳐 떠돌던 작품이 2001년 7월에 발표되자마자 극찬을 받았고, 이듬해에 이상문학상을 타게 되었으니 참으로 특이한 팔자를 지닌 작품이 아니겠어요? 〈꽃개무덤〉은 청탁을 받고 글이 안 되어서 강화도에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그곳에서 삶은 꽃개를 친구가 끝까지 잘 발라먹는 모습을 보고 소설적인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4일 만에 쓴 작품이에요.

* 문화일보에 〈유혹〉이라는 소설을 연재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신문연재를 나도 해보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애로사항은 없었지요?

그동안 제 소설에서는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많

이 다루었는데 주로

역 압되고 어긋나고 소극적인 여성상을 그렸지요. 이 작품에서는 그런 여성상을 배제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정면 돌파하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했어요. 예쁘고 지적이고 프랑스에서 활동하기도 하며 자유롭고 솔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을 당당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로사항이라면 신문연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문사가 독자를 위해 주문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1부는 이미 3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2부는 여성의 욕망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와 복합적인 관계들을 추리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자기 삶을 헤쳐 나가는 여성을 그렸어요. 2년 동안 쉴 새 없이 원고지 오천장을 썼어요.

* 요즘은 인터넷이며 영상문화의 발달로 긴 소설을 읽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짧은 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오 헨리,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은 짧지만 독자에게 전달되는 감동이 대단하지요. 저는 한동안 장편

소설을 쓰다 보니까 호흡이 길어져서 이제 단편을 쓰려면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암축미가 뛰어난 짧은 소설을 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제의식이 강한 정통 작가들이 써보면 재미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소설을 쓰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요?

저는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텅 빈 집안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만끽하며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고, 책도 읽고, 요리도 하고, 차도 마시며 나름대로 분주하지요. 밀렸던 전화를 하며 수다도 떨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영화도 보곤 하지요.

* 이대 영문과에 다닐 때의 에피소드와 친구들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소설에 푹 빠져서 밤새워 책을 읽고 쓰느라고 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늦잠을 잤다거나 비라도 오는 날이면 학교를 안가기도 하니까 같은 과 친구와 다니는 것보다 문우들하고 자주 어울리곤 했었지요.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이 제일 즐거웠어요. 교수님과도 개인적으로 가깝기 보다는 늘 한 발 떨어져서 교수님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서숙 교수님이 제 소설을 뽑아주셨고, 엄하지만 반듯하신 최영 교수님, 윤정옥 교수님을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좋아했구요. 이화문학회 지도 교수님이시고 셋스피어 강의로 인기가 높았던 유종호 교수님도 학생 때 보다는 졸업하고 믿음사에 있을 때 더 가깝게 만났던 것 같아요.

* 그동안 <꿈꾸는 마리오네뜨> <폭소> <아름다운 지옥> <꽃게무덤> <붉은 비단보> <퍼즐> <사월의 물고기> <유혹> <권지예의 빠리빠리> 등 많은 책

을 냈는데, 앞으로 쓰고 싶은 소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까?

신문 연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은 그쳐 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재와 형식으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다른 소설을 쓰고 싶어요.

* 우리 이대 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작가가 된 것은 온전히 이대의 토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125년이나 이어온 이화대학의 전통과 이화인이라는 자부심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이 대단한 것이지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선배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화의 분위기와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화를 다닌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면면히 흐르며 강한 정신을 심어주지요. 저는 이화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살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대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여성이 되었으면 하고, 선배님들 후배님들 모두 이대 동창이라 는 것 하나로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안았으면 해요. 또한 세계에서 우뚝 선 이화대학이 되었으면 하구요. 이렇게 이대 동창님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김선주 / 불문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편집위원

작가의력

1960년 경북 경주 태생

1997년 <라벨룸>으로 등단

장편소설 <4월의 물고기>, <붉은 비단보>, <아름다운 지옥>

소설집 <퍼즐>, <꽃게무덤>, <폭소>, <꿈꾸는 마리오네뜨>

그림소설집 <사랑하거나 미치거나>, <서른일곱에 별이 된 남자>

산문집 <권지예의 빠리, 빠리, 빠리>, <해피홀릭>

2002년 이상문학상, 2005년 동인문학상 수상

‘동거’ 와 ‘동락’ 하는 기쁨 함께나눈 46년

한완상

전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전통일원장관,
전대한적십자사총재, 전성지대총장,
현재 새길교회에나가고 있다.
아내인 김형은 기독교학과를 1965년에 졸업하고
현재 한국YWCA연합회수석부회장이다.

내가 아내를 처음 대면한 곳은 김포 공항 대합실에 서였다. 1966년 2월 말로 기억한다. 미국 박사 논문을 쓸 때 대학 강의를 맡았을 때로 ‘잠시 귀국’ 한 터였다. 그리고 만난 지 2주 만인 3월 11일 결혼하고 한 달 후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5월에 내게로 왔다..

당시 아내는 65년에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YWCA 연합회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내는 아마 학창 시절에 떡이나 활달하여 응원단장도 하고 교 우 관계도 활발했던 모양이다. 문리대 수석 졸업이라 들었으니 선후배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였을까? 내게 넌즈시 아내를 소개해준 분이 아내의 선배이자 나의 동기 동창(김형기 전 문교부 차관)의 부인이시다. 65년 여름의 일로 당시 나는 미국에 있었다.

8개월 간 태평양을 오간 편지와 사진을 작금의 짚은 이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와 비교해 서 생각한다면 더 진지하고 더 낭만적인 소통이라 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일면식한 적 없는 남자와 여자가 8개월 후 절절한 연인이 되었기에 말이다. 속내를 몽땅 드러내는, 스물다섯 해의 생이 아내의 편지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내가 ‘김 형’이라는 치자를 아내로 맞이하리라 결심한 것도 그녀의 솔직한 첫 편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 김포공항에서, 몇 년을 떨어져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던 애인의 상봉처럼 서로를 신뢰하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부부도 ‘금혼식’을 맞게 된다. 나는 ‘부부란 동고(同苦)하는 사이’ 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동락(同樂)’하는 사이도 물론 있을 것이나 ‘동고(同苦)’ 하는 사이가 더 맞다고 믿는다. 바로 우리 부부가 그런 사이다. 미국 테네시 공과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1970년 모교인 서울대의 초빙으로 기쁘게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유신 체제’ 와 맞서게 된다. 당시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비상 체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것은 ‘기독교 교수 협의회’ 였다. 이화여대 현영학, 서광선 교수, 김옥길 총장도 공감하였던 단체다. 우리들은 동아일보에 ‘협의회’ 명의로 백지 광고를 내고 ‘유신 반대’ 를 외치는 집회도 열었다. 당시 민주화 투쟁 집회 장소로 아내가 일하고 있던 서울 YWCA 강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무슨 배짱으로 아내가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그곳을 빌려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도 아내가 가

진 투철한 기독교 정신의 발로였을 것이다.

1980년 짧았던 서울의 봄,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한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한 채 나는 다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린다. 내가 ‘휘말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마침 모친상을 당한 내게 김대중 선생과 여러 민주 인사들이 심심한 조의를 표했었다. 그런데 상가(喪家)에서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검찰은 주장하였던 것이다. 결국 나는 내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서게 되었다. 마지막 선고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 날 구치소에서 나는 다음날 면회를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내게 할 말이 궁금했다. ‘미미(美美)’ 와 ‘리사(理史)’ 와 ‘주리(珠理)’, 세 딸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재판관 앞에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라고 간청할까? 당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솔직히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겨우 허허벌판(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건설할 무렵은 실로 그 일대는 뻘밭으로 사방 천지에 아무 것도 없었다)에 집을 장만하려 하는데 아내에게 세 아이와 생계를 책임지라고 떠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소행은 아닐까? 차라리 아내가 내게 그렇게 간청한다면 그리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마음자락 한 편에 있기도 하였다. 다음 날 아내가 면회 와서 나를 한번 슬쩍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당당하게 소신껏 말씀하세요!”

그렇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내 아내다. 고맙지만 쓸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내 머리 속에는 다시 한번 ‘아, 이 여자 정말 괜찮은 여자다!’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다.



사위, 딸, 손주들에 둘러쌓여 한완상 전 장관과 김 형 동창

이화 동창들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1968년 테네시 공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잠시 하와이 센터 스쿨 출강을 했던 때인데 그곳에서 마침 한국여자대학 총장들 회의가 있었다. 김옥길 총장을 비롯하여 송금순, 이숙종 총장 등 한국여대 총장들이 다 모였는데 유독 하와이에 거주하는 이대 졸업생들만 모두 모여 와이키키 해변에서 ‘총장님을 위한 파티’를 개최하였다. 나도 ‘이화사위’ 인지라 초대를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 날 파티를 보며 나는 이화동창들의 끈끈한 정과 협동하는 커다란 힘에 크게 감동했다. 서울대 총장이 하와이에 왔다 해도 그처럼 굉장히 하진 않았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공동체적 힘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아내에게 ‘동락의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아내와 ‘동고’ 와 ‘동락’ 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위 글은 필자가 구술한 내용을 유영선 홍보부장이 정리한 것입니다.)

한여름에 맞는 크리스마스, 학생들 성경캠프 하며 하느님 찬양

박양미

제약 82/선교사

부군/정운교목사자녀/정영찬, 정현찬



감사히 받은 옷을 입고 아안다와 함께.

몇 주 전에 우체국에서 보내주신 녹색 투피스를
찾아왔습니다.

용은 언니가 골라 준 것이라 하셔서 그런지 더욱
언니 생각이 나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선물이었습
니다. 케냐가서 외로울 때 오로지 기대고 의지했던
언니, 그리고 투정을 부릴 때마다 따뜻이 받아주던
용은 언니…….

바로 감사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바쁜데다가 가
끔 전기도 나가고 인터넷이 daum과 연결되지 않
을 때가 많아 늦어졌어요.

우체국에 실제 도착한 것은 몇 달 전 이었는데 세
금을 100불 이상 붙여놔서 바로 못 찾아오고 우리
가 운영하는 교회와 학교가 세금 면제기관이라는

서류로 process를 하느라 몇 주 더 걸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선교부 가족들! 오지의 이화 선교
사들께 선물 보내실 때 'Donation'이라는 한 단어
나 물건 값을 반드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소에서 멋대로 부쳐놓는 세금 딱
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쉽게 받게 하
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의 주일학교 사역을 위
해 색종이를 부쳐주는 약사 선배가 있는데
Donation 박스로 늘 그렇게 잘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Gospel Garden Church에서는
Heritage day(전통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공휴일
행사하느라 여인네들이 모두 자기 부족 옷을 입고
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유치원 놀이터



유치원 졸업식.

에 기구 사라고 현금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Jungle Gym, 놀이터용 사다리와 보우트 등 몇 가지 멋진 기구들을 마련했습니다.

남편 정운교 목사는 몇 년 전 파놓은 지하수 우물을 수돗물 사용 대신 교체하기 위해 5000리터짜리 물탱크를 샀고 수압이 있어야한다고 해서 탑도 쌓았습니다. 사진 몇 장 보내니 보십시오. 유치원 교사들과 찍은 사진도 있답니다.

12월 4일 주일에 선교유치원 Gospel Garden Pre-School 의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12월 중순 전에 도시를 비우듯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행사를 일찍 치르고 있답니다. 3년 전에 어렵게 교실 한 칸 짓기부터 시작한 학교가 자라 열매맺는 모습을 보며 기도해주시는 분들의 감사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등록학생 1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올해는 34명이나 되었고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보내드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해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김은경 권사님께서 선교사들에

제 나누어 주셨던 옷을 입고 있답니다. 제 옷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반팔 투피스였지요. 마침 남아공은 여름이라 입기 좋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엔 몇 달 전 보내주신 녹색 튜피스를 입고 아얀다와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얀다는 저희 대학생 사역의 제자인 독토의 아내이고 찬양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멋쟁이라 길게 땋은 머리에 금발 물을 들이고 있지요.

한국은 지금 겨울이라고 했더니 아얀다도 긴팔 옷을 입고 나왔네요.

보내주신 옷이 너무 예뻐서 감사해요.

저희는 그간 80명 이상 대학생들과 4박 5일 성경 캠프를 했고 주일학교 학생들 50명을 위한 캠프도 치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는 십대 아이들이 캠프하러 들어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십대일 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캠프에 참여한 현지 학생과 함께

그 때 그 시절 그 교정

사학과 졸업생이 독문과 조교로 왔던 사연



남재은 | 독어독문 68, 전 인문대 동창회장

내가 대학에 들어갈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나라와 독어독문학에 대하여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마다 갖 창설된 학과란 매력과 매리트도 있었고 새롭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 실현해 가는 재미도 있었다.

새로 생긴 학과에는 필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학과 조교선생님이었다. 통상적으로 그 학과 졸업생이 담당하였던 것이 관례였으나 우리는 졸업생이 없었으므로 타 학과에서 빌려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오신분이 사학과 출신인 이신자 언니였다. 키가 크고 늘씬하신 언니였는데 늘 우리를 친동생들처럼 알뜰살뜰 보살펴 주셨다.

1회 졸업생인 민용자 선배님이 조교가 될 때까지 재직하셨다. 갑작스런 민용자 선배님의 결혼으로 인하여 2개월 조교를 끝내고(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모든 직장을 사직했었다) 2대에 조덕희 언니, 3대 조교를 내가 맡게 되었다. 나의 조교 시절에는

제2외국어가 필수 선택이었으므로 전임 선생님들 외에 많은 외래강사 선생님들이 출강하셨다. 그 선생님들의 조교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었다. 다음 학기 교재를 미리 주문하여도 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여 늘 학기 초에는 교재 앞부분을 타이핑하여 교재 준비까지 해야 했으니 인터넷에 아이패드까지 있는 요즘, 그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가 같은 과의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쁨과 슬픔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과채

봄의 교정에서





여러 번 커튼콜 받았던 원어 연극공연을 마치고

풀이 인상적이었고 등산 전문가인 윤두선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등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과 주의 할 점 등을 배우던 등산과 수학여행, 또 여러 번의 커튼콜을 받고 서로를 대견해하며 기뻐하였던 원어 연극, 독일어를 잘 발음할 수 있던 특혜 덕분으로 상위권에 입상한 문리과대학(지금은 인문대로 분류됨)의 과 대항 합창대회 등의 행사를 잊을 수 없다. 그 시절 배웠던 Schubert의 Forelle(승어), An die Musik(음악에), Heidenroeslein(한 떨기 장미), Lorelei 등등 수없는 독일 가곡들, Giuseppe Verdi의 Aida에 나오는 ‘개선합창곡’, Nabucco에 나오는 “노예들의 합창” 등의 이태리 유명 합창곡은 지금도 흥얼거리다.

각 대학 독문과 체육대회는 대학마다 돌아가며 열렸고, 개교기념일인 5월31일에는 약 일주일 동안 학술대회와 축제를 개최하였다. May Queen 대관식도 볼 만하였지만 자기 짹을 데리고 참가하

는 쌍쌍파티는 한 달 전부터 짹을 찾느라 분주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 연애를 하던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훗날 결혼까지 골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나는 그때를 위한 짹을 구하느라 늘 애를 먹던 기억이 난다.

우리 과는 잔디밭에 새로 올라온 여린 새싹같이 서로를 밭쳐주며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독문과 특유의) 독일인처럼 아끼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들이 뭉쳐 창립 때의 초심을 가지고 동창회를 지금 까지 화기애애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창회 창설 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를 올린다.

그 주역이 되었던 우리의 세대들도 70이란 나이를 앞에 바라보고 있다.

모두들 건강하고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인간미 넘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본다.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3

탐매(探梅)

이명환

영문64

수필가

1939년 충남

2000년 한국수필로등단.

이화문학상수상.

저서로는

‘자상의나그네’ 등이 있다.

“이 봄엔 여기 저기 꽃구경 다니는 게 일과인데
잘 됐구먼.”

모교 박물관에서 매화전(梅花展)을 한다기에
오랜만에 옛 은사이신 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
더니 흔쾌히 나오겠다며 덧붙이신 말씀이다.

“향기 나는 꽃은 아닐 테고요. 몇 백 년이고 살
아있을 꽃. 영원히 지지 않는 꽃구경일 거예요.”

별써 십 수년 전의 일인가 보다. 선생님의 제부
인 안 화백이 꽃봉오리가 앓은 분재 매화 몇 분을
선생님 서재에 가져다 놓았다. 현데 꽃도 꽂이려
니와 그 향이 하도 기가 막혀 혼자 보기 가 아깝다
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십여 년 만에 찾아온 모교의 교정은 각양각색의
꽃들로 샤갈의 화집같이 화려하다. 게다가 꽃보
다도 더 예쁘고 생기발랄한 후배들의 틈에 잠시
라도 섞여 걷고 있자니 10년은 짚어진 듯 기분이
상쾌하다. 내가 다닐 때는 없었던 박물관을 찾아
헤매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선생님이 먼저
와 계시다. 전혀 칠순에 접어든 노인으로는 보이
지 않는 화사한 웃차림의 선생님은 예쁜 귀걸이
까지 하고 밝게 웃으며 나를 맞아 주신다. 고운 은
행색 바탕에 검정색 큰 글씨로 ‘探梅... 매화를 찾
아서’ 라 쓴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
인다. 산뜻한 4월이다.

“이 세상 하직하기 전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구름을 한번이라도 더 보아두려고 혼자서 꽃구
경을 다닌다네.”

전에도 꽃 보기를 즐기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올
봄엔 유난히 꽃을 탐(貪)하여 여기저기 소문난 꽃
마을을 찾아다니셨다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안 화백의 매화·분재 꽃 말씀
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도 잊지 못 하신다면 그
때 이야기를 해주신다. 분무기를 손에 들고 하도
꽃 옆을 못 떠나는 나를 보고 안 서방은 ‘옛 선비
가 애첩을 저렇게 바쳤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시
며 쓸쓸히 웃으신다. 매화·분재의 달인이시던 안
화백은 수년 전에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꽃이야다 신비하고 아름답지만 나는 기나긴
겨울 끝 무렵, 잎이 돋기도 전에 피는 이른 봄꽃들
이 마음에 들어. 그 중에서도 매화를 특히 좋아하
지.”

추위가 채 끝나기 전 눈발이 휘날리는 음력설

무렵부터 피는 매화. 죽은 것 같은 가느다란 가지에 가냘픈 다섯 개의 꽃잎으로 피어있는 매화꽃. 그 고결한 모습과 신비한 향기를 찾아 옛 선비들처럼 그야말로 탐매 길에 나서셨다 한다. 통도사 극락전 뒤편에 편홍매, 북한산 중턱 양지바른 곳에 있는 야생매화, 서울대 인문대 캠퍼스, 관악산 기슭, 일본의 국회도서관 앞 고목매화 그리고 이대 박물관 바로 앞의 키작은 우아한 매화의 절은 향등등.

매화는 꽃이 희귀하고 수명이 짧은 게 특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찾아 나서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어 옛부터 탐매, 심매(尋梅)라는 말이 생겼다 한다.

평소에 꽃에 대해서 무심했던 나로서는 선생님의 이런저런 꽃 이야기들이 내게 없던 감각 하나를 열어주는 것 같은 일종의 개안이었다.

옛날 선비들에게는 눈도 채 놓지 않은 이른 봄에 매화를 찾아 탐매의 길에 나서는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 옛 스승과 나이든 제자는 일기 화창한 4월에 전시장의 향기 없는 영생화(永生花)를 찾아 심매.

〈사랑과 봄의 전령〉이라는 표제가 붙은 제 1실. 한복 입은 세 여인이 홍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남정 박수근의 〈상매도(賞梅圖)〉를 시작으로 탐매 여행에 들어가다. 우월(又月) 김활란 선생님의 희갑을 축하한다는 상매도의 화재(畫題)를 대하니 어느덧 환갑이 불원한 나로서 새삼 세월의 무상함에 젖게 되는구나.

월하에 피어 있는 홍매, 백매가 암향(暗香)을 풍기는 것 같은 최석환의 아담한 십곡(十曲) 병풍 좌

우로 반닫이 화각4층장 반진고리, 빗접, 옥비녀, 각종 장신구, 그리고 경대에 이르기까지 매화는 진정 여인의 아름다움과 절개의 상징으로 규방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사랑 받는 꽃이었다. 돌아서 나오려는데 궁중유물이라는 설명이 붙은 홍매화 자수 대(大)병풍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큰 고목 한 그루에 수많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신들린 나무. 견본자수(絹本刺繡)의 극도로 세련된 솜씨와 공력도 대단하지만 양기훈의 밑그림은 너무나 신묘하여 이승의 나무 같지가 않다.

“이 병풍 친 방 매화꽃 자개 박힌 저 경대 앞에 앉아 머리 빗는 안방마님을 상상해보렴.”

“진주와 산호, 백옥 등으로 장식된 저 화려한 대삼작(大三作) 노리개를 달고 매화꽃 옥비녀로 얌전히 쪽을 찐 정장의 새댁은 또 얼마나 품위가 있었겠어요.”

“노리개의 밀화(蜜花)에 조각된, 바람에 흔날리는 듯한 섬세한 저 매화 좀 봐라.”

선생님 모시고 탄성을 연발하며 탐매의 기쁨에 젖다.

추운 겨울 눈 속에 흘로 피는 설중매.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조출한 선비의 방처럼 꾸며진 제 2실.

필통 연적, ‘暗香’ 자가 양각으로 보이는 순백 자필세(筆洗) 등 문방구에 오밀조밀 피어있는 신비한 꽃. 매화의 별칭 옥골빙흔(玉骨冰魂)이 딱 들어맞는구나. 백자청화매죽문 필통과 크고 작은 백자청화매문연적(白子青畫梅紋硯滴)들에서 보이는 청과 백의 절묘한 조화. 그런가하면 백자

양각매죽문원형 필통, 매죽문팔각(梅竹紋八角) 연적, 매죽문 선형(扇形) 필세 등 양각매화문 순백자는 정말 눈 속에 편 흰 매화의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난다.

‘바탕의 백색과 그 위에 피어난 백색의 아련한 꽃들은 옥골빙흔(玉骨冰魂)의 설매와 같은 절제된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준다.’ 고 안내책자는 적고 있다.

퇴계 선생의 매화시 한 수,
“천연한 옥색은 세속의 어두움 뛰어넘고
고고한 기질은 뜻 꽃의 소란스러움에 끼어 들지
않네”는 매화의 운치를 더욱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

도자기가 아닌 목재나 죽재 필통 지통 지판 문갑 연상(硯床) 등에 피어있는 매화는 그 맛이 또 다르다. 도자기에서보다 따뜻하고 소박하다. 자연석 매화문 벼루, 만년장춘(萬年長春) 먹 등에 양각된 세한삼우(歲寒三友) 송죽매(松竹梅), 선비들이 시회(詩會)에서 사용했음직한 매화가 장식된 목기 술병과 잔과 소반 등 매화는 그 고결한 특성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문인 묵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구나.

다음은 3실의 화매(畫梅).
자기 키만한 지팡이를 짚고 눈 덮인 산길을 매화 찾아 떠나는 노인 허소치의 <탐매도(探梅圖)>. 고목의 둉치를 대담하게 끊어 버리고 성글게 꽃을 피운 고담(枯淡)한 필치인 신사임당의 팔 쪽 <고매첩(枯梅帖)>. 희원(希園)의 <홍매도(紅梅圖)>. 시서화로 이름난 신자하의 아들 신명연의 <애춘화첩>. 우봉(又峰)의 <흑매도(黑梅圖)>. 학과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매화구경 떠나는 의제(毅齋)의 <觀梅圖>. 우청(又清)의 <학매도(鶴梅圖)>. 청전의 <송매도(松梅圖)>. 여기 이렇게 독특한 매화들을 살려낸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떠나갔는가? 백화가 난 만한 꽃구름은 아니어도 은은한 암향에 취한 듯 나는 가슴 속 깊은 곳에 잔잔한 희열을 느낀다.

마지막 방 도자기에 편 매화.

아! 청자상감매죽문주전자여! 국화 연꽃 버드나무 운학 등은 흔히 보았어도 청자상감매화는 금시 초면이구나. 고아(古雅)하면서도 맵시 있는 가녀린 매화가지. 그 위에 꿈결처럼 하얗게 피어 있는 피안의 꽃. 팔백 풍상을 어찌 그리 조신하게 견디어 한군데 흠풍도 없는고.

국보급 청화, 철화 백자항아리들의 위풍당당하면서도 매화 향을 그대로 풍기는 자연스러움이여! 백자청화매죽문병들과 팔각 병들에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대로 살아있을 꽃. 심산유곡(深山幽谷)에 남몰래 피었다 지는 꽃은 아닐지라도 집중하여 탐매하지 않으면 자기의 참모습을 감추는 옥골빙흔의 설매. 손은 익고 마음은 비운 이름 모를 도공과 화공들의 그 절묘한 솜씨에 머리 속이다. 찰나에 자기의 심혼을 다 불살라 빚어 넣은 그 신기(神技), 그 탈흔(脫魂)의 경지. 이 속인은 너무 나아득하여 숙연할 따름이구나.

마지막으로 청자에 편 아련한 매화를 한 번 더 찬찬히 바라보고 전시장을 나오다. 나는 옛사람들의 탐매(探梅)와 고회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탐화(探花), 그리고 나의 심(尋) 피안매(彼岸梅) 등 이런 저런 상념에 젖어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영 말이 없으시다.

총동창회 소식

2011년 북미주지회연합회총회참석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을 비롯하여 위성숙 지역부장, 박경임 문화부장, 지연숙 선교부장 등이 2011년 10월 27일부터 3박4일간 보스턴에서 개최한 제10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독려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총회는 보스톤 지회(회장 조수현/수학 76)에서 주관하였으며 조종남 회장은 총회에 앞서 남가주지회를 방문하여 수차례 동창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동안 미주 동창들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온 총동창회는 이번 미주 방문과 총회를 통해 모교와 총동창회에 우려되었던 일이 해결

되어 더욱 보람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하며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더욱 단결된 사랑의 동창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화국제재단 회의에 참석한 조 회장은 축하인사를 영어로 하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총동창회는 2012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밴쿠버에서 개최하게 될 제 11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의 성대한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 글은 이번 총회를 위해 1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한 보스턴지회(회장/조수현)에서 보내온 소식이다.

보스턴 지회에서 보내온 소식

제 10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성황리에 개최 보스턴지회 주최로 350 여명 참석



2011년 제10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와 42회 이화국제재단(뉴욕에 본부) 총회가 보스턴 근교의 웨스틴 월팜 호텔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이화여대 동창들의 총회는 보스톤 지회(회장 조수현)에서 개최한 것으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플리머스-보스턴 투어를 겸해 진행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동창은 260여 명이며 20개 지회, 23개 주와 프로빈스에서도 참가하였다. 국제재단 비동창 20여명, 동창 가족 70여 명 등 참가총인원은 350여명이었다. 모교에서는 김선욱 총장을 비롯하여 박동숙 대외협력처장, 남영숙 국제교류처 부처장, 총동창회에서는 조종남 총동창회장, 위성숙 지역부장, 박경임 문화부장, 지연숙 선교부장, 한재숙 수학과 동창회장 등이 참석

하였다.

25일부터 27일 까지 한나리 동창이 이끄는 뉴햄셔-메인 주의 국립공원 특별여행에는 50여명이 참가하여 뉴잉글랜드의 단풍과 랍스터, 아카디아 공원의 절경을 즐겼다. 27일, 노란 티셔츠를 입고 환영 풍선을 준비한 이문화 준비위원장은 비롯한 보스턴지회 동창들은 접수를 시작하였다. 8시, 윤정자 동창이 주관한 종이접기 클래스와 최신자동문의 이태리칸소네 클래스가 열렸고 각 지회장과 연합회 이사들은 이사회를 시작하였다. 9회 총회에서 결정된 회칙에 따라 모인 첫 이사회는 오명애 이사장이 주관했다. 각 지회의 보고와 서기록 낭독, 회계보고 후 총동창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지회



총동창회소식



연합회가 나아갈 길을 논의한 후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28일, 보스턴 지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 후 2차 클래스가 있었다. 오후에는 이소영 동창(변호사)의 미래 계획 세미나가 있었고 총장님과의 만찬에 220여명이 참가했다. 이동은 동창과 한나리 동창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수현 회장의 훈영인사,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하바드대 데이빗맥칸 교수의 이화-하바드 결연에 대한 훈영인사도 있었다. 보스턴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동창들의 연주와 소프라노 열창 후 김선욱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 소식을 전했다. 장화인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의 보고 후 참석 동창들은 경쾌하게 춤도 추면서 즐겼다. 이화 125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을 커팅하며 마침 이 날 생일을 맞은 홍순찬 동창의 생일도 함께 축하했다.

29일, 성악 공개 레슨 및 종이접기 강좌와 김은한 박사의 백제-일본 연구 강좌가 성황을 이루었다.

날씨가 폭풍으로 바뀌면서 5시에 보스턴 전역이 정전이 되었다. 비상전등 아래 총회의 마지막 대만찬을 시작했다. 270여 명의 참석자들은 크리스티나 맥간과 김유미 동창의 연주와 애틀란타 지회의 합창에 환호하였지만 정전으로 인한 준비 부족으로 조수현 회장과 오명애 이사장,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인사를 마이크도 없이 들어야 했다. 김선욱 총장은 이화의 새로운 슬로건 “모두를 위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이화여대 (Ewha, Where



총 동 창 회 소식



Change Begins)"를 강조하며 "미래형 인재 양성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며 솔베이와의 협력 사업과 이화의 실천 나눔 사업, 캠퍼스 확장 사업 등에 동창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박동숙 대외협력처장은 자료를 통해 이화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바드 법대의 석지영 교수는 특별 강연을 통해 6세 때 이민 온 자신이 교수가 되기까지는 이대를 졸업한 모친의 힘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제

재단 윤순영이사의 기금 전달 후 탈랜트 쇼 공연에서는 북가주(샌프란시스코) 15 동문들의 Phantom of the Opera 공연이 1등 탈랜트상을 받았다. 토론토의 댄싱 퀸, 뉴욕의 써니 댄스, 밴쿠버의 합창과 춤, 애틀란타의 합창, 보스턴의 넬라판타지아들의 출연도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명자 동창의 태권도 시범과 모교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하신 성정순, 노창섭, 김철규, 정확실 교수님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약학과 1회 졸업생인 안지수 동창이 '친구여'를 선창하여 다함께 합창했고 이어서 교가 제창 후 대만찬은 막을 내렸다.

30일, 총동창회가 마련한 아침식사후 모교 영상과 대외협력처의 캠퍼스마스터플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최경숙 동창이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주일예배에는 150명이 모였다. 2012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밴쿠버에서 개최하게될 제 11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 주제인 'Change Begins'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화가족 성탄예배’ 참석 재학생들에게 떡 기증

구름 1일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가족 성탄예배’에서는 참석한 총동창회 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재학생들에게 일일이 떡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여 훈훈한 성탄 예배가 되었다.

선후배 동창들이 함께 자리하여 지나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진 뜻 깊은 행사였다.

이 날 모은 감사 현금은 모두 해외 파송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화가족 성탄 예배’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한 사랑과 소망을 이화가족 간에 나누고 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첫째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더욱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부산지회 ‘송년의 밤’ 행사 참석

구름 6일 오후 6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부산지회 송년의 밤 행사에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박유나 부회장, 위성숙 지역부장, 김효신 총무 등이 참석하여 지회 동창들과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회 하은숙(동양 69) 회장과 임원진은 서울에서 도착한 총동창회 임원들을 환영하며 지회가 정성껏 준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과 2부 뷔페 만찬, 3부의 퀴즈게임, 팀별 노래 자랑, 을동 및 마술 시범 등의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2011년 ‘이화인의 밤’에서 참석한 동창들에게 나누어준 ‘건강 무릎벨트’를 선물로 전달하였다.



선교부소식

많은 동창의 중보기도 열매 맺기를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2011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기도모임을 이대 후문에 위치한 다향방에서 가져왔다.

김은경 동창(성악 64)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여 전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화 동창 선교사에게서 보내오는 기도부탁 편지와 이화동창선교사 수첩(2001년 5월부터 연 1회 발간)에 수록된 기도 제목들로 중보기도하고, 학교와 동창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때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동창 선교사들이 찾아와 들려주는 선교보고를 들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선교부 기도모임은 1994년 4월부터 시작하여 그해 6월부터 여름과 겨울 연 2회 이화단기선교 학생파송 예배후 동창선교사와의 만남을 함께하고 있다.

2003년 시작되어 거의 매해 공연되고 있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역시 선교부가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이화를 통한 선교의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화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꾸준한 중보기도 속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2012년에도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2011총동창회 선교부 행사

1.25-26 봄 수련회

5.7 희망을 여는 발레 -메시아

- 5. 17 이화창립 125주년 감사찬양예배
- 6. 21 단기선교파송예배, 동창선교사와의 만남
- 8.9 가을수련회
- 12. 1 이화가족 성탄예배
- 12. 20 단기선교파송예배

26차 단기 선교 학생 환송예배

구름 20일 겨울 단기선교를 떠나는 재학생들을 위한 환송 예배가 다향방 전도협회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 박유나 부회장을 비롯하여 JOY, ISF, JDM, SALMON, IVF, 다향방, 노래선교단, 예그리나 등 각 동아리에서 각자로 떠나는 24명과 동티모르로 떠나는 신은경 교수 및 이화 발레 양상불 13명, 이화 선교사 9명도 참석하여 함께 소명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은경(성악 62) 동창의 찬양 인도, 지연숙 선교부장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이명경(무용 77) 동창의 기도와 대학 교회 양명수 목사의 마태복음 중 '달란트 받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졌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희망과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다. 예배 후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사범대학

회장/ 김영주(유교 71)

대학 창립 60주년 및 이화 교원교육

96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11년 11월 12일 사범대학 창립 60주년 및 이화 교원교육 96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사범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리셉션, 기념식, 영상으로 보는 사범대학 60주년, 동창 한마당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선숙 사범대학 학장의 환영사와 조경원 교수(총동창회 부회장)가 대독한 총장의 축사, 김영주 사범대 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학과 별 캠퍼스튜어로 성대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범대학 6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행사인 Emma Lecture가 이보다 앞서 11월 9일 교육관 B동에서 개최되었다.



김선욱 총장의 축사와 노선숙 사범대학장의 환영사, 김영주 사범대학 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교직원과 동창,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 서울대 이상묵 교수의 '스마트 워크, 스마트 교육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의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그동안 사범대학은 초대학장이었던 김애마 동창의 뜻을 기리고자 Emma Lecture 행사를 계속해왔다.

사회과학대학

회장/ 이양준(정외 70)

동창회와 대학간의 정례 오찬회 갖어

2011년 11월 2일 모교 ECC 중식당에서 사회과학대학 양승태 학장(정치외교학과)이 초청하는 오찬회에 동창회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사회과학대학 교학부장, 정책과학대학원 교학부장, 각 과학부장이 배석하여 참석 동창들에게 학교 소식을 전해 주





었으며, 각 과 동창회장들은 그간에 있었던 동창회 소식을 전달하는 등 화기애애한 오찬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2008년 11월 사회대 이영애 학장(심리학과)이 초청한 오찬회에서 비롯되었으며 대학과 동창회가 정기적으로 연2회(3월, 11월) 갖기로 한 정례회였다.

이날 모임에서 양승태 학장은 학교 기념품을 각 과 동창회장들에게 선물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동창회 측에서도 각 과 동창회장이 마련한 조출한 선물을 각 과 학부장에게 증정하였다.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약학 72)

제 48회 정기총회 및

졸업 50주년 동창 재상봉

2011년 10월 18일 롯데호텔에서 27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기념

식에서 김구 대한약사회장, 민병림 서울시 약사회장의 축사와 이화사랑 약대 장학금 전달과 감사패, 공로패, 축하패, 표창패 수여식이 있었다.

이화사랑 약대 장학금은 총 2억 원을 모금, 권성숙 직전회장이 박동숙 모교 대외협력처장에게 1억 2,540만 원을, 이정현 주홍장학회 운영위원장에게 7,160만 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졸업 50주년 동창(12회) 재상봉 축하식에서는 64명이 참석, 멋진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축하곡으로 ‘에레스두, 사랑의 향기’ 등을 합창하였고 답례로 문화부 합창단이 2011년 동창의 날 행사 합창대회에서의 믿음상수상곡 ‘사랑하기 때문에’로 화답하였다.

오찬에 이어 총회에서는 제 28대 신임회장으로 정준순(23기) 동창을 선임하는 등 임원 개선과 함께 구임원과 신임원 인사가 있었다. 이어 정기용 명



예 교수와 이소희 동창 등 약대동창 국악모임의 특별국악 연주, 김상애(32기) 동창의 가야금 독주와 관현악 합주가 공연 되었다.

인문대학

회장/ 김혜원(불문 68)

회장단 회의 열고 각 과 발전 전략 논의

2011년 9월 15일 인문대 회장단 회의를 <이마스시> 일식집에서 가졌다. 김혜원(불문) 회장을 비롯하여 이혜옥(사학), 김영호(독문), 최수련(기독교), 방기숙(국문), 이영재(철학), 심소희(중문) 동창 등이 참석하여 각 과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각 과의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화인의 밤’ 행사 티켓 배부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최한가을 야유회는 108명이 참가, 평강 삭물원을 견학하였다.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느끼는 즐거운 하루였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이숙자(수학 73)

제1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및 가을 야유회

2011년 9월 26일 양지CC에서 자연대 4과(생명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에서 총 5팀이 참가하여 제1회 자연과학대 동창회장배 과대항 골프대회가 있었다.

이 날 우승은 수학과 팀으로 앞으로 더 많은 동창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월 17일에 개





가나다순으로 개재

교육학과

회장/ 김선애(76)

'이화G교육넷' 창립 총회 및 안인희 교수 출판기념회 개최

2011년 11월12일 교육관 김애마홀에서 교육학과 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 전현직 교육학과 교수 등 40여명이 모여 학술포럼 및 "이화G교육넷"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총회에서는 노선숙 사범대학장의 사범대학 최초의 대학원 동창회 창립 축하와 이대 명예교수이자 교육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정세화 교수의 '여성과 대학원 교육'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등이 있었다.

"이화G교육넷"은 교육학과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졸업생을 아우르는 교육네트워크로서 정기적인 학술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동창들의 지혜와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 22일 안인희(교육학과 명예교수,



교육학과 제1기, 1949년 졸업) 명예교수의 번역서 '러셀의 교육론' 출판기념회를 ECC 이삼봉홀에서 열었다. 베트런드 러셀의 On Education을 완역한 것으로 교육철학 연구에 필수 참고서로 쓰일 이 책은 안인희 교수의 번치 않는 학문적 열정이 담겨있다.

기독교학과

회장/ 최수련(74)

처음으로 선후배가 함께 하루 여행



2011년 10월 18일 다락방 기도 후 홍성혜, 장인순, 김미순, 김은희, 나명희, 최수련 등 임원 모임을 슬로가든에서 가졌다. 선후배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전체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11월 9일 선후배 화합의 장으로 문경새재 옛길과 월악산 만수계곡 낙엽길 걷기 여행을 당일로 다녀왔다.

선후배간 처음으로 함께 가는 여행이었는데 많은 동창의 참여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앞으로도 이

번 여행과 같은 선후배 화합의 장이 계속될 것이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김영호(73)

2011년도 새 동창 주소록 배포

2011년 9월 9일 간사모임에서는 새로 발행된 동창주소록을 간사들에게 먼저 전하고 각 간사들을 통해 연말에 전체 동창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회장은 파주연구복합단지 조성 후원 동창들에게 조성사업과 관련된 학교 측 입장을 전하면서 아울러 11월 11일 정기총회에도 많이 참석하기를 호소하였다.



동양화과

회장/ 권은희(80)

제 30회 ‘채연전’에서 ‘‘채연상’ 시상

제30회 채연전이 201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모교 '이화미술관'에서 55명의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동창회는 2011년 '채연상' 수

상자로 장현재(85), 성인제(00) 동창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상금은 일백만 원이다.

사학과

회장/ 이해옥(74)

파주연구복합단지 조성 기금 문제 논의

9월 정기간사회를 2011년 9월 22일 가진 후 파주 연구복합단지 조성 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10월 4일 임시 간사회를 열고 파주연구복합단지 조성기금은 사학과장학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10월 간사모임은 금산, 진안, 전주 지역 답사로 대체하였고 11월 정기간사회를 11월 24일 석란에서 가졌다.



사회학과

회장/ 이근원(71)

‘국제 지구촌 학회’ 참석

모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노창섭 박사께서

세운 세계적인 학회인 '국제 지구촌 학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중미에 위치한 프에리토리코(미국령)에서 지난 2011년 5월 26부터 4일간 열렸다. 김자혜(74, 소비자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전 회장과 오숙영(77, 오즈리서치 대표, 덕성대 교수) 현 회장을 비롯하여 김희숙, 이옥자 등 지구촌학회 이사가 참석하였다.

'The Global Future : Caribbean and Beyond'를 주제로 하여 총 82개의 논문과 발표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김자혜 동창이 '한국의 소비자 운동'에 대해, 오숙영 동창은 '한국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생명과학과 회장/ 최명선(77) 생명과학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2011년 11월 14일 ECC 내 이삼봉홀에서 생명과

학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선욱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와 최양도 서울대 교수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배윤수 생명과학과장께서 60년 학과 연혁을 소개하였다. 김성진 자연대학장, 이숙자 자연대학 동창회장, 학부 교수 등 많은 참석자들이 축하하였다.

서울대 병원 노동영 교수, 최재천 교수와 동창인 김성미 박사가 특별강연을 하였고 은퇴 교수인 노분조, 이양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제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동창회는 노분조 교수께 감사패를 드렸다. 생물학과 졸업 4기부터 36기에 이르기까지 250여 명의 동창들과 재학생이 참석하여 행사 를 빛냈으며 창립 6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섬유예술과

회장/ 박정례(79)

제4회 이화 섬유 예술전 전시

대한민국예술원(<http://www.naa.go.kr>)미술관에서 2011년 11월1일부터 8일까지 ‘현대섬유예술의 NEW VISION’이라는 부제로 제4회 이화섬유예술전 전시가 개최되었다.

동창회인 예미회(회장/박정례, 부회장/정영란)가 주최하는 전시로 섬유예술과 출신 현역작가와 교수 등 60여명의 작품이 선보였다.

전시오픈 행사에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권순형 예술원 회장, 이신자 교수(예술원 회원), 오숙환 조형예술대 학장, 염정윤 교수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현대 섬유예술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진 자수, 직조, 염색, 섬유조형의 평면과 입체 작업 작품들이 전시되어 오랜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하며, 현대적 감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작가들의 예술관과 연구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박화숙(신방74)

스승과 제자가 오찬 즐기며 덕담 나눠

2011년 10월 24일 김동철 교수께서 우이동의 멋진 단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구름의 집으로 전.현 임원진을 초대, 오찬을 즐기며 덕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안광식, 윤희중 교수께서도 참석, 학창 시절의 일화를 얘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영어영문과

회장/ 김창영(74)

추계강의 및 간사회의

2011년 10월 27일 ECC 극장에서 연사 조희창씨를 모시고 ‘지고의 슬픔에 대하여 – Stabat Mater’ 란주제로 음악 강연을 들었다. 100여 명의 동창이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성모님의 슬픔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키는 음악 감상을 하였으며 강연 후 함께 오찬을 했다.





컴퓨터공학과

회장/ 문남미(85)

창립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동창회와 학과가 함께 주최하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다.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학과의 발전을 기리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였다. 김선욱 총장을 비롯한 학장, 교수 및 많은 내외빈들이 함께 자리하여 더욱 뜻깊었다.

특수교육과

회장/ 한기정(75)

40주년 맞아 학술제 열어

2011년 11월 19일 과 창설 40주년 기념 학술제, 기념식, 동창의 밤으로 이어지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학술제는 교육관에서, 기념식과 동창의 밤은 ECC 이삼봉 홀에서 진행되었다. 총장, 사대학장, ECC 이삼봉 홀에서 진행되었다. 총장, 사대학장,

대외협력처장, 송준만 명예교수, 교과부 권택환과장, 언어병리학과 김영태, 심현섭 교수 등 여러 내빈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축하하였고 71학번부터 06학번까지 어느 한 기도 거르지 않고 240여명이 출연하여 특수교육과 동창장학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 모금은 모두 자발적 기부이며 앞으로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학과

회장/ 김원정(87)

설립 30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마쳐

행정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학과 동창회가 주관한 기념식이 2011년 11월 15일(화) ECC 이삼봉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 기념 강연시간에는 박웅격 행정연구원장(주제)/ 엔트로피사회와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표환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장(주제/ 한국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의 기조강연에 이어 재학생들로 구성된 이화행정 학회에서 전국 대학생 KAPS-KIPA 모의 정책갈등조정회의 경연대회의 출품작(주제/ 고용문제), 청장년층 세대 간의 대립) 시연이 있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송희준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김선욱 총장과 김병섭 한국행정학회 회장, 양승태 사회과학대 학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행정학과 30년사 소개, 한인숙 명예교수의 30년의 소회에 이어 원숙연 학과장이 행정학과의 현황과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어 행정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한 동창들에게 감사패 전달과 행정학과와 동창회에서 마련한 장학 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졸업생과 교수, 학생 대표 및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이화 행정 3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였다.

화학과

회장/ 신해영(78)

6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에 200여 명 참석

60주년 기념행사가 2011년 10월 5일 ECC 극장에서 있었다. 이종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김선욱 총장, 유영숙(77, 환경부장관), 김성진(81, 자연대 학장), 신해영 동창회장, 윤주영 주임 교수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 및 축사를 하였다.

이어서 '화학 전공분야에 관한 내용 및 여성과학 도로서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Prof. Joan S. Valentine(UCLA, 이대 WCU), Prof. Jonathan L. Sessler(UT Austin, 연세대 WCU), 이효숙 박사(74,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안정현 박사(90, LG화학 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임미희 교수(99, University of Michigan), 문희리 교수(01, UNIST) 등 6명의 연사가 학술발표를 한 후 화학과 출신 성악가 박찬옥 및 은퇴한 정용운 교수의 축사 후 만찬이 있었다.





가나다순으로 계재

남가주지회

회장/ 오명애(장미 74)

하반기 이사회 및 총동창회장 지회 방문 환영회

2011년 9월 15일 합창부(단장/ 이해순, 악학 70) 정기 이사회가 열려, 지휘자와 반주자를 새로 초빙하기로 하고 9월 말 지휘자에 박신실(성악 93) 동창, 반주자는 구교진 씨로 결정하였다. 었다. 2012년 공연을 위한 연습이 10월 13부터 시작되었다. 9월 21일 제 9 회 총장배 Golf Tournament 가 Westridge Golf Club 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동창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약 7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고, 게임 후에는 Club 내 Banquet Room 에서 한식 Buffet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한나리(체육 91) 동창의 사회로 시상식과 푸짐한 상품추첨이 있었으며 챔피언은 84 타를 친 한명자(체육 83) 동창으로, 2010년에 연이어 트로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10월 7일 Buena Park 소재 Seventh Home에서 이음회 모임이 있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음회 발전을 위해 좀 더 많은 회원 참여를 위한 홍보와 가능하면 2-3년에 한 번씩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친목 모임을 가지자는 안건들이 토의되었다. 2012년 1월 7일 장경해(피아노 75) 회장 자택에서 신년 친목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녹미회(회장/ 배금신, 조소71)가 로스앤젤레스 Wilshire 에 위치한 Lee & Lee Gallery 에서 미대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인 녹미전을 개최했다. 남가주지회에서 처음 시도한 이 전시회에는 초대작가로 초청된, 뉴욕과 한국에서 활발히 작품전을 하고 있는 Dorothy Dea(김옥자, 생미 68) 동창 등 19명의 미대 졸업생들의 수채화, 유화, 채색화, 민화, 아크릴화 등, 총 4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2011년 하반기 이사회를 10월 22일 열고 차기 회장으로 김정순(간호 75) 현 부회장이, 차기 이사장에는 박화자(간호 66) 현 이사장 서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한편 10월 25일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 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조종남 총동창회장 환영회가 오후 6시 30분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있었다. 오명애 회장 및 10여 명의 동창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조종남 총동창회



장은 2013년에는 전 세계의 이화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화인의 밤을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추진 중이며 점점 커져가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모교의 발전 내용 등을 참석 동창들에게 전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오명애 회장 및 17명의 동창들이 참여했다. 27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오명애 회장이 본총회의 이사장으로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내슈빌지회

회장/ 김애경(의학 75)

1년에 2번 모임 가지며 친목 다져

봄과 가을, 두차례 만나 약 40 가정의 이화 동창 가족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내슈빌지회가 지난 봄, 20명의 동창들이 김애경 회장 자택에서 이 수상 신부를 강사로 모시고 ‘장조의 원리’ 강의를

들었다. 2011년 9월 24일에는 6명의 임원이 ‘해운대’ 식당에 모여 차기회장 선출과 다음 모임에 대하여 논하였다.



뉴욕지회

회장/ 유덕향 (약학 71)

47주년 뉴욕 연례만찬 성대히 거행

2011년 9월 3일 서울 소재 6개 사립 대학 뉴욕 입시박람회가 Bayside, NY에 있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에서 많은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동창회 임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설명회 후 오정화 입학처장과 모교의 소식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9월 정기모임에서는 뉴욕 동창회의 연례만찬, 보스턴에서 있을 지회연합회 총회, 선배라면 장학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현 동창회 기금 중에서 \$10,000을 선배라면 장학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2012년 3월 초 더 보내기로 하였으며, 개인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였다.

9월 17일 북부 New Jersey 다섯 번째 모임을 Englewood에 있는 FGS KCC에서 가졌다. 많은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점심식사후 이시은(체육 90)동창의 “Leader의 Communication”에 대한 강의가 박력감 있게 진행되었다. 9월 24일에는 Staten Island 지역모임을 정은숙 동창(도서관 77)자택에서 가졌다.

47주년 연례만찬이 10월 23일 DoubleTree Hotel에서 1949년부터 2005년까지 졸업한 동창들과 이화 사위를 포함한 130여명이 모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박문순(사학 66)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제1부에서는 장화인(교심 69) 이사장의 기도와 유덕향(약학 71) 회장의 환영인사가 있었고 김선영(성악 95)동창의 축가에 이어, 이정화(영문 70) 장학위원장의 장학금 수여와 교가 제창이 있었다. 만찬 시 모교의 후배가 북미주의 “선배님들께 보내는 편지”의 Video 상연은 후배들과 친

밀한 관계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동창들의 green이 아닌 마루에서의 골프 실력을 구경한 후 시작된 제2부에서는 아리랑 합창과 함께 김명수(무용 77)동창의 무용이 어우러졌다. 86년 졸업한 여섯 동창들의 ‘SUNNY’ 춤과 푸짐한 경품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참석 동창 모두 참여하여 즐긴 막춤은 모두가 이화 동창이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하였다.

한편 녹미희 그룹전 전시회 ‘Little by Little’ 이 Manhattan에 있는 Gallery Maum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었다.

뉴질랜드지회

회장/ 문정아(제약 82)

총회에서 새 임원진 선출

2011년 9월 13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문정아 회장을 재선출하였으며 부회장에 권명혜(교육 80), 총무에 이보아(음악 85) 동창 등을 새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구립 10일 송년모임을 가졌다.

보스턴지회

회장/ 조수현(수학 76)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성황리에 마쳐

2011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보스톤 지회에서 개최한 제10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와 42회





이화국제재단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플리머스-보스톤 투어를 겸해 진행한 이번 총회에 참석자는 총 350여 명으로 20개 지회, 23개 주와 프로빈스(뉴햄프셔, 메인,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오클라호마, 뉴욕, 뉴저지, 펜실바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2지회, 미시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2지회, 워싱턴주, 매릴랜드, 버지니아, 텍사스 2지회, 애리조나, 앨라스카, 온테리오, 밴쿠버)에서 참가하였다. 센루이스와 캔자스지회에서도 서신 연락이 있었다.

만찬과 총회, 다양한 투어와 주일예배까지 알차게 진행한 3박4일로 29일 조수현 회장사회로 개최한 지회연합회 총회 역시 120명 참석자 모두 진지하게 회칙을 결정했던 작년 회의록을 들었고 회계보고를 통과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윤종희 회장의 인사로 시작한 각 지회 보고와 향후 지회연합회 발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였다. 2012년 11

월 1일-4일 밴쿠버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2011년도 총회는 30일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관련기사 44P 참조)

애틀란타지회

회장/ 조성숙(가정 64)

평생 잊지못할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송년 모임이 구립 11일 한복회(성악 73) 동창 자택에서 있었으며 그동안 후배 유학생의 어려움에 저희가 조그만 도움을 주고 있다.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에 20명이 참석, 갑작스런 동부 폭설로 10월 29일 보스턴 만찬 행사시 전기가 나가 계단을 이용하여 연회장에 모였던 일, 자가발전을 이용하여 전기는 들어왔으나 Cook의 문제, 연사들이 마이크 대신 확성기(?)를 이용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 지려는 순간 우리가 준비해간 합창을 선두로 하여 분위기가 가라앉아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



되어 저희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총회가 되었다. 새 삼 감탄한 것은 모두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연사들에게 귀 기울이는 이화 동창들의 모습이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이화의 정신이 정말 아름다웠다.

한편 구립 1일 합창단의 연말 모임이 단장(정소영 Club House) 자택에서 있었다.

오타와지회

회장/ 이연숙(간호 72입)

복음화된 통일 조국 꿈꿔본 모임 가져

2011년 10월 1일 오타와 근교에 사는 정선덕(국제대학원00) 동창 자택에서 가을 맞이 소풍을 겸한 정기모임을 하였다. 가을을 맞이하여 캐나다의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0월 19일 가는 계절을 아쉬워하며 다시 한자리에



모인 동창들은 선교 목적으로 연변을 다녀온 최영아(도서관 81) 동창의 이야기를 듣고 중국을 통해서는 열려 있는 북한 선교의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꿈꾸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10월 22일 이은경(장식미술85) 동창이 오타와 시내에서 경영하는 EK Lee Style 개업식에 많은 동창이 참석, 손수 만든 음식과 꽃 등으로 축하해주었다.

자카르타지회

회장/ 민경례(불문 76)

영화 ‘씨니’ 감상하며 학창시절을 추억



2011년 9월 22일 사기숙(피아노 75) 동창을 비롯하여 16명의 동창이 자리를 함께 한 정기동창회를 열었다. 르바란 연휴 관계로 석 달 만에 가진 이번 모임에 나성연(무용 99), 김은애(체육 01) 신입 동창이 참석, 푸짐한 한식을 나누며 유쾌한 모임을 가졌다. 한편 10월 20일에는 민경례(불문 76) 동창을 비

롯한 8명이 한국 영화 ‘씨니’를 감상하며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청주지회

회장/ 김상기(수학 69)

통영 야유회로 즐거운 하루

구립 14일 청주 파비뇽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불우한 학생 세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한편 11월 14일에는 모두 버스를 대절하여 통영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참석 동창들은 정담을 나누고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점심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클리블랜드지회

회장/ 유용희(국제사무 80)

사진 영상을 보면서 이화에서의 추억을 회상

2011년 10월 지회는 동창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꾸기 위한 Active Iso-Stretch Exercise 강습을 하였고 Baldwin Wallace College를 방문하여 이화의 교환 학생들과 오찬을 나누고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11월 12일에는 동창회 부부 동반 연례 만찬을 유용희(국제사무학과 80) 동창 자택에서 갖고 2011년도 동창회 활동 영상을 보며 회계 보고 및 동창회 소식을 나누었다. 만찬 후에는 모교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지회 동창



들의 학창 시절을 회고하는 사진 영상을 함께 보면 서 이화 동산에서의 추억을 나누기도 하였다.

2011년 신임 회원으로 김현지(관현 96), 이내은 (교육심리 93), 박광미(체육 89) 동창 등이 등록하였으며 수정하고 보완된 새 주소록을 동창들께 배부하였다.

한편 2012년 신임 회장으로 노희용(약학과 82) 동창을 선임하였다.

토론토지회

회장/ 공영희(생미 71)

14개대학대항골프대회에서 ‘이화’ 이름 빛내

대학 동창회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2011년 9월 17일 외국어대 동창회가 주최하여 열린 14개 대학 대항 골프대회에서 5명의 동창이 참가, 여자대학 단체 1등, 여자 개인 1등과 Nearest 상(유활란/

사회체육95), 2등 (유명숙/ 경영74)을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다시한번 이화의 이름을 빛냈다. 9월 횃불회 모임은 조화정(불문77)동창 자택에서 22명이 참석, 조 동창의 부군 권성수 박사(토론토 York대 교수)의 ‘회계학, 자본주의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강의와 중보기도에 관한 간증을 들었다. 한편 보스톤에서 열린 북미지회연합회 총회에 유인희(체육56), 공영희(생미71), 탁연자(사회사업 71), 유명숙(경영74), 조미리(도예81)동창이 참가하여 김선욱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하여 북미 각 지역 동창들과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북미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

을 하였다.

11월 횃불회 모임은 원정민(생미80) 동창 자택에서 25명이 참석, 정은주(법학85, 토론토대 신학대학원 석사) 강도사의 ‘우리 – 크리스천의 공동체(교회) 생존이유와 존재이유 유지를 위한 방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많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다. 또 2011년에 현금을 불우이웃돕기 사업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11월 20일 한 해를 보내는 연말모임에서 총 회를 열고 문아연(사회72) 동창을 29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29명이 모인 이날 모임에서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슬라이드를 감상하며 2012년 토론토지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



을 결의하고 새롭게 발간한 광역토론토 이화여대 동창주소록과 함께 2012년 수첩, 선배라면 메모지를 배부하는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아쉬운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마쳤다.

파리지회

회장/ 송미영(불문 75)

재불 이화 동창회 20주년 맞아



구립 3일 12시 파리 15구의 '퀸스 다이닝'에서 재불 이화 송년모임이 있었다. 특히 2011년은 파리지회가 2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대 선배들과 함께 총 46명이 참석하여 자축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성실하게 임기를 수행한 이성순(제약 81) 회장과 임원진이 퇴임하고 11기 회장으로 송미영(불문 75) 동창이 선출되었다.

홍콩지회

회장/ 정도경(사회사업 81)

골프 모임 파랑회 한국 학교 담장 벽화 봉사



운동과 친목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골프 모임인 '파랑회' (이명희 회장/무용 68, 정도경이사, 사회사업 81)가 이번에는 한국 국제 학교의 담장 벽화 작업을 이끌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세계와의 화합을 주제로 원색의 다양한 그림들로 꾸며진 정문 담장은 '파랑회'에서 지원한 3만 달러와 파랑회 회원들의 작업 참여로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한국 학교 오희석(영문 80)교장은 벽화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파랑회 회원들과 작업에 동참한 재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감사해 하며 아름다운 학교로 거듭나게 되어 기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회는 2012년도의 홍콩지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으로 정도경(사회사업 81) 동창을 선임하고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 이명희(무용 68)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모교소식

김선욱총장, 하버드대 방문 및 이화국제 재단이사회·북미주지회연합회 참석

김선욱 총장은 10월 26일 미국 하버드대를 방문, 드류 파우스트(Drew Faust) 총장과 만나 본교와 하버드대가 진행하고 있는 ‘이화-하버드 썸머스쿨’과 ‘HCAP(The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교 간 교류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욱 총장과 파우스트 총장은 각자 젠더법과 미국여성사를 전공한 학자로서 학문적 교감을 나눴다. 파우스트 총장은 특히 본교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여성 양성 프로그램인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와 EGEP(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에 큰 관심을 보이며, 대학이 당면한 이슈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김 총장은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해 양 기관 간의 연구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리셉션을 개최했다. 하버드대 교수진 및 학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의 글로벌 비전과 영어로 진행되는 한국학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화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를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10월 31일에는 볼티모어 소재의 메릴랜드 대학을 방문, 제이 A. 퍼먼(Jay A. Perman) 총장과 양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MOU) 조인식을 갖고, 의학 및 약학·간호학·공학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 진행과 향후 법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의 교류도 확대할 것을 협의했다. 김 총장은 이후 메릴랜드 대학 내 산·학·연 클러스터인 바이오팩크를 둘러보았으며,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단은 볼티모어시가 주관하는 바이오 엑스포에 서울시와 함께 참여하여 모교 연구의 우수성을 알렸다.

김선욱 총장은 10월 28, 29일 양일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42차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회’ 및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도 참석했다.

한국 간호 교육의 효시, 에드먼즈 선생 탄생 140주년 행사

한국 간호 교육의 효시이자 본교 간호학과 창설의 기틀을 마련한 마가렛 에드먼즈(Margaret J. Edmunds) 선생의 탄생 140주년을 맞아 11월 24일 기념식과 학술심포지엄을 비롯 특별전시회 개막식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건강과학대학·간호과학연구소·간호대학동창회가 주관한 본 행사는 한국에 온 첫 간호교육 선교사로서 이화를 넘어 한국 간호교육의 눈부신 학문

적 발전을 일구어낸 에드먼즈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에드먼즈 선생은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도시 빈민을 위한 간호에 헌신하던 중 조선의 전문 간호 인력 부족에 관한 칼럼을 읽고 한국행을 결심, 미국북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1903년 3월 보구여관의 간호원장을 맡았으며 9월에는 한국 최초의 간호원 양성 학교를 설립했다.

보구여관 간호원 양성학교를 세우며 '간호원'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한 에드먼즈 선생은 1908년 1회 졸업식을 통해 '한국 최초의 졸업 간호원' 두 명을 배출하고, 미국 간호학 교과서인 'Text Book of Nursing' 을 번역한 '간호교과서'를 출간했다. 이러한 에드먼즈 선생의 간호교육은 1955년

한국 최초의 간호 분야 대학교육과정인 이화여대 간호학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총 2,8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선우 총장, 신경림 건강과학대학장, 간호대학동창회 김진향 회장을 비롯 에드먼즈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해 선생의 뜻을 기렸다.

이화인, 각종고시에서 승승장구

사법시험 46명, 행정고등고시 5명, 변리사시험

11명 합격

각종 국가고시에서 이화인들의 합격 소식이 이어졌다.

11월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53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 결과 모교 출신 46명이 최종 합격했다. 총 707명이 합격한 이번 사법시험에서 본교는 총 합격자 중 17명의 재학생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중 법학 전공자는 42명, 비전공자 4명으로 집계됐다.

대 올해 사법시험은 로스쿨 출범과 사법시험 정원 감축으로 1천명에서 지난해 800명에 이어 700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대 등 상위 6개 대학 출신자들의 비율이 줄고, 여성 합격자 수도 264명 (37.3%)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그러나 모교는 역대 합격비율 중 최고인 6.5%(46명)로 대학별 합격자 비율 5위를 차지하며, 상위 6개 대학 중



사법시험 대학별 순위 및 합격비율

대학명	최종합격인원	합격비율
서울대학교	189명	26.7%
고려대학교	93명	13.2%
연세대학교	84명	11.9%
성균관대학교	50명	7.1%
이화여자대학교	46명	6.5%
한양대학교	45명	6.4%

유일하게 전년 대비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근 몇 년간 모교의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
2005년 51명 △2006년 52명 △2007년 57명 △
2008년 63명 △2009년 55명 △2010년 49명으로,

본교가 배출한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총 582명으로 늘어났다.

11월 22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제55회 행정고등고시에는 5명의 이화인이 합격했다. 직종별 합격자는 일반행정직(전국) 3명, 재경직 1명, 법무행정직 1명이며, 이중 재학생 합격자는 이소윤 씨(행정학) 1명이다.

또한 12월 6일 발표된 2011년도 행정고등고시 기술직 시험에서 3명의 이화인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행정고등고시 기술직 시험에는 1,781명이 응시하여 총 72명이 합격해 평균 2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여성합격자는 17명이다.

1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제48회 변리사시험에는 총 1,228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



총합격해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여성 합격자는 25.4%(61명)으로 전년(28.7%) 대비 하락했으나, 모교는 작년(6명)에 비해 현격히 상승한 1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허전문 변호사’인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을 위한 출원 대행이나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전문 직종 중 하나다. 모교는 2005년부터 변리사시험 준비반을 운영해왔으며, 2010년 4월부터는 변리사시험과 기술직 행정고시 준비를 위한 전용 고시반을 신규 개설해 전용학습실 제공, 도서 구입 지원, 모의고사 실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SCI논문 질적 평가에서 국내대학 2위

종합대학 1위, 논문 질적 수준 세계 평균 웃돌아
10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SCI) 핵심학술지에 실린 우리나라 논문(정부, 민간 지원)들의 질적 평가지표인 ‘상대적 순위보정지수’에서 모교가 1.029을 기록하여 포스텍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란 학술지 영향력 지수(IF, Impact Factor)가 학문 분야별로 편차를 보이는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편차를 보정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한 지표로써 논문의 질적 수준

을 가늠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상대적 순위보정지수가 1.0이면 세계 평균 수준임을 의미한다. 국가별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는 미국 1.088, 영국 1.074, 독일 1.038, 일본 0.971, 중국 0.942, 한국 0.933 수준이다. 국내대학의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는 포스텍(1.064), 모교(1.029), 광주과학기술원(1.014), 서강대(1.008), 서울대(0.970), 고려대(0.932), 연세대(0.922) 순으로, SCI 논문수가 월등히 많아도 평균적 수준은 아직 글로벌 스텐더드에 미치지 못한 대학들이 많았다.

‘선배라면’ 캠페인 1주년, 147명에 장학금 지급

11월 11일은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의 첫 약정이 이루어진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1년 전 한 달에 만원씩 후원하는 선배 만 명을 모으고자 야심차게 시작된 선배라면 캠페인은 현재 1,550여명의 선배가 참여한 가운데 총 약정액 14억 5천만 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선배들의 사랑으로 모인 기부금은 2011년 1학기 22개 학과 26명의 학생에게 2,2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2학기에는 58개 학과 121명의 학생에게 약 1억 1,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돼 불과 반년 사이 다섯 배로 증가했다. 특히 선배라면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계 곤란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선배라면의 이러한 성과는 소액 기부 릴레이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외협력처는 선배라면 캠페인 1주년을 맞아 ‘학과당 100명의 선배 모으기 운동’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화UI 데이 개최

기획처 홍보과는 모교의 브랜드 가치를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이미지와 비전을 담은 새로운 UI를 발표하고, 11월 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정문옆 잔디광장에서 ‘이화UI 데이’를 개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화UI는 먼저 교표를 정비하고, 이화체를 새롭게 개발하여 교명의 표기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이화의 개척정신과 비전을 담아 ‘Ewha, Where Change Begins’를 슬로건으

로 선포하고, 세상을 바꾸며 걸어온 이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표현한 ‘이화의 길’을 그래픽 모티프에 담았다.

‘이화UI 데이’는 이화인들에게 최종 완성된 UI를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화UI 폴더와 UI 머그컵, 도너츠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 가운데 1,700여 명의 이화인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화UI 데이’ 행사에 맞춰 다양한 교내 전시도 개최됐다. 대강당 계단에는 작년 11월 9일부터 한 달간 ‘이화의 길’을 표현한 바닥 조형물이 설치됐으며, 이와 함께 조형예술대학 조덕현 교수팀의 ‘이화의 빛 길, 소리 길’ 조형 전시도 교내 곳곳에 설치되어 늦가을 캠퍼스에 이화의 의미와 색을 덧입혔었다.

글. 모교기획처홍보과



동창소식

졸업연도순제재

안인희 (교육 49)

전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인 안 동창이 2011년 10월 22일 ECC 이삼봉홀에서 번역서 '리셀의 교육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동창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범대학 동창회에 500만 원을 기탁하였다.

이영자 (작곡 54)

작곡과 교수를 역임하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이 동창은 2011년 11월 20일 금호아트홀에서 '내 혼에 불을 놓아'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문희 (약학 5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며 전 제17대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인 문동창은 2011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해외 한인 약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국 마약 퇴치 운동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연순(법학 61), 민희자(교공 67),

강인식(정외 61), 임순혁(사범대 68),

김혜자(국어국문학과 73)

정연순, 민희자, 강인식, 임순혁, 김혜자 동창이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꽃예술학회가 2011년 11월 29일부터 프랑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의 '프랑스-한국 우호의 밤' 행사는 일

환으로 '생명의 환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160여국 대사를 비롯한 세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꽃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의상, 음악, 음식 등 격조 높은 대한민국의 문화 소개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였다.

박영자(국문 63)

수필가인 박 동창이 수필집 '앞산이 보이지 않는다'로 2011년 11월 25일 제15회 '이화문학상' 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이대동창문인회(회장/ 김현자)가 이화문학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이화문학 발전을 목표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저서로 '한 장의 흑백사진'과 여러 권의 공저가 있다.

채초혜 (국문 63)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채(미국명/이초혜) 동창이 2011년 미주 PEN 문학상(시부문) 을 수상했다. 이 상은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국제 웨인 미주연합회가 제정했고 한국본부가 후원하고 있다. 시집으로 '시간의 바람결', '창 밖엔 치자꽃이'가 있으며 유명시인회(Famous Poet Society)로부터 세익스피어 트로피를 받은 바 있다.

김숙자 (체육 64)

서울시 체육장학재단 이사장인 김 동창이 작년 10월 27일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연합

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박광순 (기독 64)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박 동창의 칠순 기념 유화전시회가 2011년 9월 10일부터 플러틴 베로니스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30여 점의 유화들이 전시된 이번 유화전의 수익금은 박 동창이 15년 동안 봄담아온 오페라 캘리포니아 학창단 후원금으로 지원되었다.

김순희 (법학 66)

애틀랜타 한인회 패밀리센터 소장인 김 동창은 한인을 위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과 생활 도움 상담(부부상담, 약물중독 등)을 하며 매월 교민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영사 업무도 돋고 있다.

김현자 (국문 66)

이대동창문인회 회장인 김 동창이 2011년 11월 25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모교 김선우 총장을 비롯하여 이건청 한국시인협회 회장, 이대동창문인회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동 작품집 <첫 클릭클릭> 출판기념회 및 제15회 이화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박정자 (교육심리 66)

소설가인 박 동창이 제13회 '재외동포 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에 제정된 이 상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며 박 동창은 '박휘원' 이

란 필명을 사용, 소설 '내지의 속삭임'을 응모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병화 (체육 66)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인사동 순풍갤러리에서 160개 국을 여행한 여행가로서 '최병화 사진전'을 가졌다. 9월에는 아산박물관에서 다문화 의상전시회를 하였다.

윤시향(독문 68)

원광대 독문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원광대 명예교수 및 (사)한국공연예술원장인 윤 동창이 구립 6일 서울연극센터에서 제6회 '올빛상'을 수상하였다.

'올빛상'은 한국여성연극인협의회가 여성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인 여성연극인들을 상찬하고자 제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상으로 윤 동창은 평론상을 수상하였다.

오기근 (의학 68)

아주의대 교수인 오 동창이 2011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 암병원 4층에서 육체의 치유를 넘어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대 암병원과 갤러리 아트힐 공동기획전이다.

이승신 (영문 72)

시인인 이 동창이 스무 번째 저서이자 4번 째

시집인 '삶에 어찌 꽂피는 봄날만이 있으랴'를 펴냈다. 2011년 3월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중앙 일보가 동시에 재재해 화제가 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던 "3.11 '일본 대재난' 위로"의 시가 마침내 한국어와 일어로 된 한 권의 시집으로 출간, 양국 독자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강옥자 (신방 74)

2011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장학 재단 운영위원장에 취임했다. 평통자문회의 여성위원들이 모여 만든 이 장학재단은 매년 통일에 대한 논문을 쓰는 석, 박사 과정의 학생 매년 4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우혜진(신방 74)

구립 10일 헤이즐넷 인터넷 협력방을 개통하였다. (<http://www.hazelnet.co.kr>)

김정희 (약학 79)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해외 프로젝트의 하나인 KOWIN(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의 Atlanta 지회 회장을 맡아 여성 지도자 발굴과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11년 세계대회의 주제인 '그린코리아 세계를 이끌다'에 발맞추어 '그린애틀랜타를 여는 여성'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희경 (조소 79)

수원대 교수인 김 동창이 2011년 9월 28일부

터 10월 4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Bloom(피 어오르다)' 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생명이 피어나는 기운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각인되어 그 에너지의 파장 안에 자신의 모든 회한과 아픔을 작품으로 송화시켰다.

이선희 (신방 85)

동화세상 회장인 이 동창이 2011년 10월 22일 여수MBC와 함께 '2011 정채봉 동화잔치'를 공동 개최했다. 약 8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 문학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독후감 및 백일장 대회와 함께 정채봉 작가 10주기 기념 '제1회 정채봉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황양숙 (종교음악 81)

2011년 10월 17일 경동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가졌다. 오르간 음악에 대한 이해와 진솔한 사랑을 보여준 연주회였다.

인성희 (종교음악 82)

2011년 1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소프라노 독창회를 가졌다. 지극히 절제된 가운데 폭넓은 연출의 효과를 보여준 무대로 청중들의 성원에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와 '넬라 판타지아'로 회답했다.

나영지 (특수교육 84)

나 동창은 캐나다 BC주에서 'Here & Now Community Society'라는 비영리재단을 등록

하였다. Here & Now Community Society는 한국인 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체로 같이 봉사하고 있는 동창은 권은영(대학원 졸), 백주리(84), 김영주(79, 캐나다 회계사) 등 등으로 전방위 특수교육과 공동체다.

나진숙 (조소 84)

2011년 11월에 개관한 유중아트센터 내 유중 갤러리&창작스튜디오관장으로 부임하였다. 유중갤러리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조망하고 예술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대중과 나누고자 신진, 중진, 원로작가들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작가군의 전시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박은혜 (작곡 87)

작곡과 교수인 박동창은 서울문화재단과 동아일보의 후원 2011년 11월11일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열린 베리타스 무지개 정기연주회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남립 (작곡 82) 김영경 (87) 이경원 (87)

구립 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작곡가회에서 주최한 기획연주회 –한센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행’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수영 (문화정보 88)

미국 미시간대 정보학 대학원 부교수인 이동창이 최근 미국정보학회(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연이어 수상하였다. 2005년도에 이어서 2011년에도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ASIS&T 연례학회 총회에서 출판논문 중 최우수작에 주어지는 Best JASIST Paper Award를 수상하였다.

주지완 (도예 88)

재미 도예가가인 주동창이 2011년 10월 뉴욕 첼시에 있는 노호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이수연(성악 92)

이음회(이대음대 동창 합창단)의 지휘자이자 국내 유일의 유리피안 앤티크 살롱 공연장인 ‘MAISON de la MUSIQUE(음악의 집)’ 운영자인 이동창은 구립 6일 살롱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트리플 콘서트를 열었다.

박명화 (대학원 간호학 93)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박동창이 2011년 여군 정기인사에서 장군으로 승진, 영예의 준장 계급장을 달았다.

홍승연 (체육 95)

2011년 10월 29일 부 터 11월 2일 까지 Washington D. C.에서 개최한 제 139회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 연례회의 및 시상식에서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인 홍동창의 논문

'Effectiveness of the dissemination of manual-based senior exercise intervention' 이 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았다.

미국공중보건학회(APHA)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분야의 보건 전문가들이 모이는 가장 오래된 학회로서 1872년 아래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안전 등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해왔으며 3만 명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보건의료관련 최신 정책 및 연구결과를 1,000개의 세션을 나누어 진행한다.

김지현 (작곡 95)

2011년 11월 21일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아세아작곡가연맹(ACL)의 New Music Concert에서 김동창이 작품을 발표하였다.

박옥주 (종교음악 95)

2011년 11월 10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박옥주가 그리는 오르간 세상 IV」로 오르간 독주회를 가졌다. 베토벤의 교향곡과 미사곡이 연주되었다.

신선영 (영어영문 96)

2011년 9월 신동창이 한국무역협회 중국 북경지부 부장으로 부임했다. 한국무역협회 최초 여성 해외지부 주재원으로 무역업체 지원 사업, 무역진흥 사업, 정보서비스 사업, 대외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아 2015년 초까지

근무하게 된다.

유순연 (종교음악 96)

2011년 9월 19일 횟불선교센터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가졌다. 성실함과 학구적인 이해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무대였다.

박성희(성악 01)

소프라노 박동창이 구립 6일 제 4회 오페라 대상에서 클래식타임즈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모교에 출강하고 있는 박동창은 2011~2012 보건복지부 나눔의 흥보대사로도 위촉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은주 (한국음악 04)

한국음악과 강사인 최동창 제 6회 '최은주 해금독주회'를 2011년 9월 15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2009년부터 일 년에 두 번씩 독주회를 가지고 있으며 3월에 다음 독주회가 있을 예정이다.

고효진 (통역번역대학원 11)

고동창은 통대원 재학 중 번역 실습 평가 수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김훈의 단편소설 <강산무진>으로 제 42회 현대문학번역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현대문학번역상은 Korea Times가 주최하여 한영 문학번역 분야의 주요 등용문 역할을 해온 공모전 형식의 시상제도이다.

※지면관계상 '동창이펴낸새책'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11. 1 - 2011.12



이주영(영문 75)	1,000,000	이용주(의학 77)	1,000,000	김은주(정외 81)	2,000,000
배혜경(영문 79)	1,000,000	이혜성(의학 77)	1,000,000	김영미(문정 81)	2,000,000
김계주(불문 78)	1,000,000	고은희(의학 78)	1,000,000	김현미(신방 81)	2,000,000
이은희(기독 97)	1,000,000	김현영(의학 78)	1,000,000	최신애(사회 81)	2,000,000
황명순(정외 75)	1,000,000	오혜숙(의학 78)	1,000,000	노혜련(사복 81)	2,000,000
황인엽(정외 91)	1,000,000	이재옥(의학 79)	1,000,000	오미경(심리 81)	2,000,000
성인숙(신방 70)	1,000,000	임선영(의학 82)	1,000,000	김기원(수교 81)	2,000,000
유영선(신방 75)	1,000,000	김효신(의학 84)	1,000,000	민병주(물리 81)	2,000,000
백수경(신방 79)	1,000,000	안혜선(의학 84)	1,000,000	박명우(화학 81)	2,000,000
지연숙(사회 82)	1,000,000	유동원(의학 84)	1,000,000	김옥경(생명 81)	2,000,000
박혜정(사회 97)	1,000,000	이승희(의학 84)	1,000,000	최은희(종음 81)	2,000,000
한재숙(수학 79)	1,000,000	정은숙(의학 84)	1,000,000	박인혜(한음 81)	2,000,000
김성옥(생명 72)	1,000,000	피상순(의학 84)	1,000,000	김성희(동양 81)	1,000,000
박영숙(생명 78)	1,000,000	김은성(의학 86)	1,000,000	우순옥(서양 81)	2,000,000
방명혜(기악 67)	2,000,000	신효경(의학 90)	1,000,000	이선희(조소 81)	2,000,000
이경진(관현악 71)	1,000,000	김계숙(간호 70)	1,000,000	정영란(섬례 81)	2,000,000
계명선(피아노 85)	1,000,000	김진향(간호 73)	1,000,000	이봉훈(생미 81)	2,000,000
문성희(작곡 80)	1,000,000	정경숙(간호 75)	1,000,000	이미나(체육 81)	2,000,000
정용재(동양 81)	1,000,000	조혜숙(간호 76)	2,000,000	장윤희(무용 81)	2,000,000
박정례(섬례 79)	1,000,000	김선애(간호 80)	2,000,000	박영숙(교육 81)	2,000,000
노 용(생미 72)	1,000,000	문 희(약학 59)	1,000,000	이경미(유교 81)	2,000,000
박영주(생미 77)	1,000,000	김순영(약학 62)	1,000,000	박정서(초교 81)	2,000,000
박유나(도예 81)	1,000,000	차영화(약학 63)	1,000,000	김재경(교공 81)	2,000,000
조연수(도예 83)	1,000,000	이강희(약학 66)	1,000,000	강은경(영교 81)	2,000,000
조경원(교육 75)	1,000,000	김경자(가정 63)	1,000,000	이혜경(불어교육 81)	2,000,000
조을순(초교 75)	1,000,000	박민정(소인 99)	1,000,000	부은령(사생 81)	2,000,000
권미경(교공 87)	1,000,000	김유겸(의직 70)	1,000,000	김성애(특교 81)	2,000,000
황인경(과교 86)	1,000,000	고혜숙(의직 75)	1,000,000	류무희(수교 81)	2,000,000
양유경(수교 78)	1,000,000	설영자(의직 75)	1,000,000	장옥주(법학 81)	2,000,000
김윤옥(보교 70)	1,000,000	권옥희(식영 70)	1,000,000	이봉학(경영 81)	2,000,000
김숙혜(법학 65)	1,000,000	박경임(식영 73)	1,000,000	임은식(국제사무 81)	2,000,000
권분이(의학 51)	1,000,000	이선헤(식영 74)	1,000,000	신해림(의학 81)	2,000,000
김애주(의학 51)	1,000,000	최수주(식영 75)	1,000,000	이희숙(간호 81)	2,000,000
오양자(의학 65)	1,000,000	이혜양(식영 79)	1,000,000	백명신(약학 81)	2,000,000
김화숙(의학 71)	1,000,000	최영은(정책대08)	1,000,000	홍동련(제약 81)	2,000,000
김태임(의학 74)	1,000,000	어현숙(국문 81)	2,000,000	홍중옥(의직 81)	2,000,000
정화순(의학 74)	1,000,000	서영주(영문 81)	2,000,000	강남이(식영 81)	2,000,000
배순희(의학 75)	1,000,000	이화원(불문 81)	2,000,000	도예81년졸업일등	1,000,000
유기숙(의학 75)	1,000,000	한자경(철학 81)	2,000,000	장미81년졸업일등	2,000,000
조종남(의학 75)	1,000,000	이 영(사학 81)	2,0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1년 총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창들께서 보내주신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납부자 명단 문의는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학	박영숙(67)	유지연(07)	조길희(63)	남상훈(62)	중어중문학과
문과	이 혜(67)	박혜성(08)	김영화(65)	노수자(64)	신하윤(91)
이윤재(43)	신연임(69)	서지혜(08)	김조자(65)	서정임(68)	금지원(92)
이희호(44)	유원화(69)	장장미(08)	김봉희(66)	오옥환(68)	김진경(92)
불 명(44)	유원화(69)	박지혜(09)	이혜재(66)	오옥환(68)	전혜령(94)
국어국문학과	이혜옥(69)	석하림(09)	장수자(66)	유향숙(68)	이수연(95)
김경희(54)	장종옥(70)	이유진(09)	장수자(66)	정금례(69)	김태은(97)
최정희(56)	김용희(72)	이은지(09)	김연숙(69)	민병서(71)	이주연(98)
박현숙(57)	이상희(72)	이은지(09)	윤경애(70)	정혜자(72)	장혜진(99)
이형숙(57)	이영옥(72)	이향아(09)	김미순(75)	김영주(73)	강보경(03)
김수희(58)	김옥순(73)	장유진(09)	유승희(82)	이영미(74)	김혜진(03)
김수희(58)	정혜숙(73)	고유라(10)	백은미(89)	김지영(75)	방가희(03)
김영학(58)	조운희(73)	김지민(10)	김민정(03)	김지영(75)	김방선(04)
임인지(58)	최숙희(73)	나문희(10)	이경민(04)	신향범(75)	심지연(04)
한정숙(59)	최취수(73)	박계형(10)	조정자(04)	유종희(75)	배지영(05)
구자숙(60)	김옥진(75)	박신재(10)	최혜진(10)	이재순(75)	이설희(05)
김경숙(60)	방효경(75)	윤경원(10)	철학과	장경원(75)	이소미(05)
김정자(60)	이천애(75)	이혜인(10)	최현덕(80)	정현주(76)	조휴경(05)
신도자(60)	전신애(75)	임혜진(10)	이지애(87)	윤혜신(80)	박혜미(06)
신도자(60)	한순미(75)	조인선(10)	박수영(93)	김영완(81)	이주영(06)
남을우(61)	백영자(76)	지재현(10)	고경희(95)	이 영(81)	나혜진(07)
예종완(61)	백영자(76)	문은경(11)	이소민(96)	이용은(85)	서어진(07)
유해일(63)	박인숙(79)	박승해(11)	김민선(05)	이영란(87)	안상신(07)
윤숙자(63)	이미숙(80)	유소영(11)	송민경(06)	정혜중(91)	안상신(07)
이점숙(63)	어현숙(81)	이은영(11)	안소정(09)	백정선(93)	정세영(07)
조남숙(63)	우은미(83)	조민하(11)	황지은(10)	이은주(97)	서지현(08)
박미해(64)	여지은(94)	조혜선(11)	서경화(11)	이영신(98)	신유영(08)
안정환(65)	김소정(98)	이수자(65)	홍예리(11)	김민영(07)	이은선(08)
유정자(65)	이주현(99)	이재은(07)	사학과	조영서(07)	이진희(08)
이수자(65)	임지현(00)	이채은(07)	박경하(60)	전소연(08)	이한나(08)
최영선(65)	김선주(02)	기독교학과	손경주(60)	손민정(09)	임정희(08)
신효재(66)	김현정(03)	신낙균(63)	이은숙(60)	김자연(10)	최미소(08)
이혜숙(66)	민유경(04)	신혜정(65)	김학자(61)	양혜빈(10)	안지혜(09)
정준선(66)	한경화(06)	이정자(66)	김호숙(61)	김수진(11)	이하나(09)
박영숙(67)	반승아(07)	전민혜(63)	김학자(62)	신정은(11)	남지현(10)

유은혜(10)	이행자(62)	윤정근(78)	송효영(07)	윤용범(64)	독어독문학과
이란지(10)	정기호(62)	허정자(78)	전화진(07)	조귀연(65)	민용자(67)
이세연(10)	김정매(63)	김경은(79)	한서영(07)	김영희(66)	오영란(67)
곽혜민(11)	김정순(63)	문영희(79)	김태연(08)	성명숙(66)	이중희(67)
이지윤(11)	문영혜(63)	이해남(79)	김희경(08)	이초희(66)	최옥주(67)
장미나(11)	박봉숙(63)	최경혜(79)	서은주(08)	엄선경(67)	우애령(68)
영어영문학과					
이정순(49)	백신자(64)	김영실(80)	오주혜(08)	이광자(67)	이숙경(68)
임정희(49)	백화자(64)	김종유(80)	이소영(08)	이한순(67)	이정순(68)
최윤애(49)	이명환(64)	박동숙(80)	장주영(08)	김혜원(68)	최경순(68)
김영정(50)	배현숙(65)	불 명(80)	정규현(08)	박종희(68)	위재숙(69)
류수인(50)	윤정혜(65)	이승희(80)	김시내(09)	백명미(68)	유귀열(69)
정학실(50)	정혜주(65)	서영주(81)	박경혜(09)	이원옥(68)	이금숙(69)
조효정(50)	최계자(65)	김미원(82)	박서영(09)	홍미자(68)	현영은(71)
유연숙(54)	최청규(65)	이순주(82)	안효진(09)	장혜경(73)	최선희(73)
김순자(55)	임영자(66)	이영진(82)	이지은(09)	강숙희(74)	유동신(74)
백형진(55)	김교숙(68)	임순희(82)	염지현(09)	신덕영(75)	황영남(75)
손경임(55)	이운경(68)	박경애(83)	전세희(09)	김영혜(77)	정종희(80)
천영애(55)	이원희(68)	서정채(83)	전지혜(09)	신주용(77)	이귀영(87)
최일연(55)	이인숙(68)	이수경(84)	권구혜(10)	이은주(77)	이은경(89)
김형식(56)	백용희(69)	전기옥(84)	권슬기(10)	김보경(81)	조경은(92)
이인주(56)	김수영(70)	이승은(85)	김보경(10)	이난희(83)	김지연(96)
함선영(56)	성혜옥(70)	엄현진(93)	김윤아(10)	장영은(83)	최인주(97)
곽경수(57)	송봉자(70)	조문선(94)	문경은(10)	정소영(86)	박종재(06)
김춘삼(57)	이경숙(70)	성계영(95)	문경은(10)	김현정(00)	배시우(10)
최종업(57)	고경원(71)	권정아(96)	박현지(10)	김수정(01)	강동주(11)
김경숙(58)	김수연(71)	임지선(96)	신선미(10)	이유미(02)	박연주
이경희(58)	노민애(72)	불 명(97)	오혜성(10)	최연희(02)	
이영복(58)	조정희(72)	홍민혜(97)	이정화(10)	박영신(03)	
박재옥(60)	김창영(74)	최수진(99)	이주은(10)	강지연(07)	
송은자(60)	이경아(74)	손지선(02)	이지민(10)	김희진(07)	불 명(56)
이강희(60)	정덕애(74)	최경아(02)	지수예(10)	이정현(08)	박혜숙(56)
최영희(60)	김원정(75)	박정은(03)	강영미(11)	장현정(08)	박원옥(57)
최화정(60)	백혜련(75)	안주현(04)	강지혜(11)	김현주(09)	오명령(57)
공경원(61)	장정애(75)	고서형(05)	김민희(11)	양지영(09)	최명숙(57)
김연주(61)	강인숙(76)	김유니(05)	남빛누리(11)	강보경(10)	최향남(60)
유승옥(61)	박보선(76)	김민지(06)	남윤진(11)	김보선(10)	이숙자(63)
이수진(61)	위진영(76)	김소연(06)	박예진(11)	불 명(10)	박완규(66)
김영순(62)	유의순(76)	김지현(06)	이병숙(62)	이한나(10)	최금자(66)
이기영(62)	이계호(76)	박선양(06)	허영자(62)	정정아(10)	신경희(67)
이정희(62)	신미경(77)	김자선(07)		유수정(11)	우행자(69)
불어불문학과					

최영자(69)	이제영(10)	김나연(05)	김채영(68)	손문경(82)	최혜림(05)	
김영희(70)	표윤신(10)	김은정(05)	박영숙(68)	지연숙(82)	오헤인(06)	
백영옥(70)	현지은(10)	박옥희(05)	이민자(68)	김민정(88)	이미영(06)	
서염미(70)	김진아(11)	오정현(05)	백봉희(70)	박혜정(97)	김혜옥(07)	
서정희(70)	임주연(11)	이윤경(05)	이주석(72)	이해원(03)	이송희(07)	
심인주(70)	행정학과					
이양준(70)	김지나(85)	엄수진(06)	현영아(72)	김주희(04)	송윤조(09)	
이연표(70)	유재희(87)	이진숙(06)	윤소영(73)	주혜정(04)	김희원(10)	
정인복(70)	임자영(02)	고창희(07)	임정미(80)	이연희(05)	오정애(11)	
조백련(70)	최혜지(02)	이민희(07)	김영미(81)	최경세(07)	심리학과	
조복선(70)	황혜정(05)	조현아(07)	문화선(81)	오혜민(08)	박경숙(57)	
신경희(71)	김민정(06)	최연주(07)	김선희(85)	홍예림(08)	백남희(59)	
배영희(73)	임원경(06)	현경이(07)	계난경(88)	이현숙	유남숙(62)	
박현숙(73)	정현진(06)	김나현(08)	고유경(95)	사회복지학과		
이전주(74)	유샛별(07)	김보람(08)	정혜영(04)	이숙자(57)	황경숙(62)	
최종혜(76)	김선미(08)	박지영(08)	이슬비(06)	김판숙(58)	김 연(67)	
이문숙(79)	양희진(08)	서여경(08)	양보연(08)	김현지(60)	홍기명(68)	
황자옥(81)	조형주(08)	박해랑(09)	정은아(09)	오순희(60)	이경숙(71)	
이영미(85)	고영희(09)	서푸른(09)	박혜정(10)	이정숙(61)	염혜경(71)	
김혜경(87)	유지혜(09)	정버금(09)	이주현(11)	최태순(62)	이옥형(71)	
최현영(89)	조수형(09)	천현민(09)	사회학과		김정애(76)	
최지원(95)	김소희(10)	강희웅(10)	장의순(62)	최수자(63)	조상옥(76)	
김희강(96)	문은진(10)	신동아(10)	최혜재(62)	손경자(64)	오미경(81)	
유현선(97)	박혜영(10)	신지혜(10)	이안자(64)	김일숙(67)	이말희(81)	
김선미(98)	심미혜(10)	이소영(10)	최용소(65)	최수자(67)	이연우(84)	
김민아(01)	허진화(10)	최미라(10)	김덕신(66)	고순자(69)	박응희(88)	
박지현(02)	고유란(11)	최애리(10)	유혜향(66)	김정희(70)	이동길(89)	
홍영주(02)	김경지(11)	고나희(11)	정행자(66)	양정애(70)	장서희(01)	
마나영(03)	배성은(11)	권민정(11)	표경희(66)	한숙자(70)	권도연(06)	
박지은(03)	유주희(11)	박아람(11)	양우남(67)	원필숙(72)	송승희(06)	
우현진(03)	이선영(11)	박자연(11)	진여순(67)	김기숙(74)	송인경(07)	
심인숙(05)	이주희(11)	박정민(11)	유혜숙(69)	김혜순(84)	이현정(07)	
김윤정(07)	조성은(11)	유민경(11)	이효원(69)	함정인(84)	김선영(09)	
박현경(07)	경제학과					
양정현(07)	유영란(85)	이수경(11)	민순기(70)	윤명숙(87)	김순희(09)	
김민애(08)	장균주(89)	최은미(11)	최진선(70)	성미영(91)	백초롱(09)	
성래현(08)	신은희(94)	유현경	홍은진(70)	권경나(95)	양수임(09)	
이아림(09)	정혜원(92)	문헌정보학과				
이은별(09)	채의양(94)	채희균(63)	이근원(71)	성명신(95)	남경인(10)	
배유나(10)	김보람(96)	유소영(65)	손귀덕(73)	심민지(96)	변예경(10)	
우세라(10)	김영서(03)	최선희(65)	김난숙(74)	신은영(97)	김보영(11)	
			문명재(77)	이영미(02)	신문방송학과	
			김은미(81)	정유선(02)	장명수(64)	
			최신애(81)	박아혜(04)	최화자(64)	

김영자(65)	최수영(11)	홍지은(93)	양수경(67)	윤영애(68)	이지향(10)
조선희(66)		김소연(02)	김형경(70)	조인혁(69)	이지혜(10)
채명자(66)	자연과학대학	전지원(02)	이인희(70)	조애현(70)	조영경(10)
김지연(67)	수학과	서혜승(03)	민명홍(71)	백옥화(74)	김성은(11)
한명미(67)	송순희(58)	이호영(06)	윤희숙(71)	이순우(74)	김수진(11)
불명(67)	김정명(59)	손정현(07)	김향숙(73)	김용숙(75)	김수현(11)
김미령(69)	이일수(61)	이영수(07)	김영희(74)	차은희(76)	김유미(11)
김명숙(70)	윤연상(62)	오세미(09)	김정원(76)	박영숙(78)	김은주(11)
성인숙(70)	장상(62)	이유진(09)	박혜진(76)	김미희(80)	문정연(11)
문은희(72)	남선일(64)	박우형(10)	전길자(76)	김옥경(81)	문혜진(11)
김용란(73)	신정수(65)	신우영(10)	유영숙(77)	백영순(81)	박규민(11)
박화숙(74)	이송자(68)	이지영(10)	이영순(79)	이선영(87)	백민화(11)
연일선(75)	김선옥(70)	조정선(10)	황복기(83)	강숙경(89)	송보라(11)
유영선(75)	김영숙(70)	김수정(11)	김은경(93)	장진이(92)	신희경(11)
권영순(77)	최길남(70)	김정경(11)	국현아(94)	김효숙(94)	안여운(11)
백수경(79)	노현숙(71)	오지영(11)	박효진(97)	서주원(95)	오혜민(11)
홍인화(80)	이숙자(73)	물리학과	신미류(03)	백지영(02)	오혜윤(11)
차지은(81)	심홍임(78)	정경숙(63)	박민선(04)	윤여주(02)	유혜란(11)
홍귀정(83)	한재숙(79)	김경자(68)	지다은(05)	박보령(03)	이선주(11)
노현지(86)	곽남미(81)	김영선(68)	신지윤(06)	신명은(05)	이연경(11)
오현정(97)	최예정(82)	손종수(72)	최윤지(06)	최애선(05)	정혜원(11)
김명원(01)	이지연(92)	민병주(81)	반미연(07)	김정은(07)	최나영(11)
김유리(01)	한진영(93)	김세원(97)	이주희(07)	이소희(07)	
김정하(02)	박남호(97)	문선영(04)	손금선(08)	장선미(07)	공과대학
오형숙(03)	손은주(99)	이재희(06)	장윤정(08)	한우진(07)	컴퓨터학과
김연정(04)	이수현(00)	김희진(09)	김민경(09)	박선영(08)	김경희(85)
박혜자(06)	남혜주(01)	원초룡(09)	손금선(09)	조윤성(08)	강성실(86)
장가영(06)	진선영(03)	여윤미(09)	유혜진(09)	김혜령(09)	김미희(97)
이선영(07)	박지나(06)	임윤진(09)	전온지(10)	류혜빈(09)	박원정(05)
최선아(08)	최예진(07)	유수민(10)	조예슬(10)	박은지(09)	조윤경(05)
최영은(08)	박나영(08)	화학과	김윤희(11)	송다혜(09)	최효선(05)
김신혜(09)	송은(08)	박원경(56)	원하늘(11)	이서영(09)	윤기연(06)
류리(10)	유하나(08)	김종은(60)	한칠경(11)	조가현(09)	이해민(06)
윤우리(10)	최지희(08)	박영현(60)	생명과학과	김다훈(10)	송화정(07)
이경진(10)	양민경(10)	박영완(61)	류우(60)	김민선(10)	이은경(07)
이아영(10)	한솔(10)	김세명(62)	최순경(60)	김우정(10)	남소연(08)
장미선(10)	김은빛(11)	조숙희(63)	최영희(60)	남미리(10)	노주영(08)
차소라(10)	노수련(11)	김명화(64)	홍입선(60)	서진주(10)	유지민(08)
최단비(10)	이민진(11)	김민정(64)	홍정숙(60)	서혜란(10)	장지윤(08)
김은지(11)	통계학과	김명화(64)	서영숙(61)	송은미(10)	오지수(09)
윤서현(11)	양수지(93)	양영자(65)	이혜숙(67)	송정아(10)	이우림(09)

김경인(10)	최현진(11)	김영은(10)	정미숙(83)	황유선(11)	이효범(61)
김현희(10)	홍원정(11)	우숙영(87)	차희경(85)	이지혜(11)	함인숙(61)
이지민(10)		관현악과	오히승(97)	서양화과	홍경숙(63)
양현모(11)		구경자(59)	송민경(02)	장선숙(50)	오순영(64)
정보통신학과	음악대학	이경진(71)	안소영(05)	민숙자(64)	최희경(65)
배유경(05)	윤연경(49)	한영식(72)	종교음악과	신현아(64)	변정현(67)
이혜인(05)	임금자(59)	안진희(76)	양수화(71)	최구자(65)	노정자(68)
이소희(06)	이순영(61)	김행연(79)	오재복(79)	이선희(67)	박광혜(68)
김수경(07)	정소영(62)	윤혜원(80)	최은희(81)	김혜숙(70)	강명옥(71)
안소은(07)	최승현(63)	윤문정(96)	한기영(81)	유용희(70)	손정례(72)
이윤혜(07)	김기순(66)	윤문정(96)	이성희(90)	강승애(72)	이혜경(72)
정예진(09)	최영진(68)	김성희(05)	윤미정(94)	신윤방(72)	임정미(74)
김현희(10)	나효선(70)	허기선(08)	오영란(01)	황혜선(73)	홍은표(74)
이인애(10)	채문경(70)	유성희(10)	고은선(02)	김효정(77)	장영란(77)
건축학과	송지은(10)	이진영(11)	최은빈(07)	김선희(80)	박정례(79)
강유림(02)	정보람(11)	성악과	한국음악과	전순옥(80)	손경숙(80)
김문정(02)	음악과	남옥우(60)	박인혜(81)	김선주(89)	이난숙(80)
윤주연(05)	계순영(56)	오세숙(61)	윤묘섭(83)	변진혜(89)	정영란(81)
이화영(05)	이현수(56)	왕마자(67)	곽은아(85)	이상미(89)	이귀숙(85)
정다운(05)	심재영(57)	최경희(69)	이정선(94)	안혜리(91)	정학용(85)
송진아(08)	주영희(57)	이영자(73)	류정연(95)	김소형(94)	송정수(89)
신원재(09)	오이숙(58)	이연화(74)	권혜경(09)	서선아(94)	손정연(93)
심미혜(09)	피아노과	천정림(77)	김찬미(10)	황혜민(00)	정윤선(93)
윤혜리(09)	문병주(39)	천인숙(82)	마수경(10)	한수영(11)	안미현(94)
박소라(10)	권혜령(76)	김은주(83)	정유진(10)	조소과	노연희(99)
천지영(10)	김영희(77)	석혜원(94)	배경진(11)	박덕선(65)	전혜정(05)
홍경진(05)	김미숙(82)	김한라(07)	하상지(10)	한계원(72)	황은빛(06)
홍경진(05)	김혜련(84)	류미(07)		황지선(74)	권남희(09)
환경공학과	이향아(84)	김예진(10)	조형예술대학	강신애(78)	박다미로(10)
김경하(99)	한난이(84)	백송민(10)	동양화과	이혜경(79)	박민정(10)
윤귀선(03)	노수영(87)	이남윤(10)	박인숙(68)	서옥천(81)	생활미술과
강윤주(08)	원수미(94)	전여진(10)	민은기(69)	이선희(81)	김명임(63)
염성원(09)	박은하(98)	정수연(10)	오상혜(69)	이연경(81)	문화자(67)
윤세나(09)	최보금(02)	전여진(10)	문예(75)	백인정(96)	이민정(67)
이재영(09)	권지은(05)	작곡과	박용자(77)	이영노(02)	조창연(67)
이원정(10)	이율경(05)	김육자(67)	이은영(78)	강나영(07)	이호복(68)
배다정(11)	임정빈(05)	김시애(75)	김명희(81)	고은선(07)	신수연(69)
유상희(11)	권혜인(07)	이주희(75)	최경아(89)	신경미(07)	김미자(70)
이지선(11)	권기호(08)	진영미(75)	손희정(91)	최새롬(08)	윤이중(70)
이지현(11)	원현정(08)	진정숙(75)	문주원(08)	조보경(09)	박선영(71)
장승원(11)	임정빈(09)	이미옥(79)	권혜경(09)	섬유예술과	이미숙(72)

서은주(73)	정유지(11)	이미나(81)	교육학과	이재옥(68)	박해미(88)
한상혜(75)	패션디자인	김진이(85)	정일례(50)	장예순(68)	안영주(88)
이주형(80)	이아라미(07)	김수아(88)	사지숙(55)	유승희(70)	신아림(92)
이봉훈(81)	오정희(08)	김옥자(92)	김근순(56)	김명희(73)	이현진(94)
장식미술과	복식디자인	이윤숙(94)	윤정자(56)	문경숙(74)	장문정(94)
권지원(75)	김진영(05)	김혜영(07)	조병주(56)	채문숙(74)	황보영(94)
박 실(75)	백정원(09)	노현경(07)	최영숙(56)	곽삼근(75)	홍주현(95)
이옥찬(79)	디자인학부	이새미(09)	이연숙(57)	임현숙(75)	서유현(96)
채효영(80)	권희나(06)	박혜명(10)	임명숙(57)	조경원(75)	전홍주(96)
고정란(81)	김세미(06)	송정은(10)	정승례(57)	정비용(76)	정가윤(96)
홍지연(86)	최예리(10)	김지원(11)	권유봉(58)	김혜련(79)	정고운(96)
신승원(87)	최지선(10)	박혜림	정갑순(58)	정미경(79)	전영주(00)
조예리(95)	전채원(11)	사회체육학과	정재숙(58)	박영숙(81)	정연주(00)
도예과	양지윤(10)	이호성(97)	권봉선(59)	강은희(83)	한희경(00)
이경숙(69)	회화 판화	김진화(09)	김성숙(59)	박진옥(83)	박나윤(04)
진숙현(77)	박민정(04)	김태희(09)	김은산(59)	김혜영(03)	정봄마지(06)
박유나(81)	신주은(06)	무용과	김춘심(59)	강영희(04)	김호영(07)
최진녀(82)	김지효(07)	김정수(70)	심재원(59)	이지은(04)	김효미(07)
김선경(83)	박지원(07)	조수형(70)	양영자(59)	홍영희(05)	김나연(09)
안희정(85)	이지희(08)	이경신(72)	장혜원(59)	박소영(06)	김성찬(09)
엄승희(88)	민유미(09)	이명화(76)	김문자(60)	김윤정(08)	김지은(09)
이설아(06)	반윤선(10)	손경순(77)	정미숙(60)	현지숙(09)	박하나(09)
황영미(07)	이정은(10)	이명경(77)	조차영(60)	김신애(10)	김지현(10)
길고은이(10)	이영민(11)	장승희(86)	권혜숙(61)	주윤정(10)	고은님(96)
박지윤(10)		박유경(93)	유성교(61)	박상희(11)	고정자(64)
안성원(10)	체육대학	장구보(94)	유수현(61)	반혜주(11)	초등교육과
정해진(11)	체육학과	하상우(00)	장경희(61)	호재숙(49입)	고정자(64)
정보디자인	조성환(49)	조경립(06)	전윤숙(61)	김인숙	양영숙(64)
송수현(97)	방봉세(51)	박진덕(07)	김영희(62)	이수진	김광자(65)
양필은(98)	김정자(56)	정순주(08)	박영희(62)	최신용	이행자(65)
임현수(99)	이성여(65)	김명미(09)	이정숙(62)	유아교육과	이재순(68)
시각정보디자인	전성자(67)	서진희(09)	백영자(63)	이순일(35)	정경자(71)
이유진(03)	정혜선(67)	조희경(09)	이정옥(63)	유근희(61)	조현순(72)
김 령(06)	서희경(69)	최현아(09)	손성혜(64)	정주라(62)	조을순(75)
김보경(08)	문규순(70)	한혜주(09)	강영은(65)	전희정(68)	이경희(77)
손성민(08)	김은희(72)	박선영(10)	심기종(65)	정명자(68)	박정서(81)
박미나(09)	윤남숙(72)	박선화(10)	윤순희(65)	김영주(71)	박소현(90)
최승연(09)	이계환(73)	정민정(10)	고명희(68)	조한수(71)	정주선(97)
환경디자인	원선경(75)	허다솜(10)	김신지(68)	양승희(72)	김주연(02)
김초롱(08)	이영란(76)	이은미(11)	박정수(68)	김영재(74)	김선진(09)
박세진(10)	이경옥(80)	사범대학	박혜숙(68)	이경미(81)	박영선(09)

옥정선(09)	박민경(06)	박주은(09)	민태희(70)	권계현(10)	서한나(07)
김보영(10)	정혜빈(07)	오하나(09)	박영주(70)	노영당(10)	안소민(07)
최나윤(10)	박지운(08)	윤지영(09)	노현숙(71)	방소민(10)	조예랑(08)
배하나(11)	김미형(09)	임송미(09)	이선희(72)	윤은주(10)	김현서(09)
이주연(11)	이경숙(09)	문지윤(10)	이선희(73)	김보람(11)	마승연(09)
장세영(11)	고은정(10)	안새미(10)	박지선(74)	김지향(11)	박현주(09)
교육공학과	박선영(10)	이민경(10)	이연희(75)	홍혜란(11)	이나영(09)
도영숙(68)	권은정(11)	이수경(10)	황인수(79)	과학교육과	이현지(09)
심재선(69)	김지은(11)	공현주(11)	강재숙(80)	신경숙(61)	최유란(09)
김정예(73)	김지인(11)	김누리(11)	이성숙(86)	송옥자(66)	홍혜선(09)
노정숙(74)	배지영(11)	김은영(11)	서현숙(87)	이순자(67)	홍혜영(09)
신경인(75)	윤예지(11)	김정은(11)	이승희(92)	이순자(67)	황주리(09)
손영신(77)	손성인(11)	여별희(11)	이연자(92)	한옥희(67)	강수연(10)
김재경(81)	영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이은경(97)	곽혜경(68)	박소정(10)
박효숙(84)	강혜숙(80)	(불어전공)	정은정(97)	한태화(68)	신지현(10)
이윤주(94)	이숙희(68)	서영란(80)	노재선(99)	최영인(70)	이윤소(10)
박민진(96)	전혜경(68)	이혜경(81)	정승아(99)	주영미(72)	정지영(10)
최순이(97)	김영숙(69)	이경자(75)	장인경(00)	블 명(74)	정해림(10)
최순이(97)	박혜란(69)	임선희(85)	박은혜(01)	서혜영(74)	정현정(10)
최아람(06)	이혜완(69)	김현주(88)	김연주(02)	이영희(75)	조효빈(10)
구옥진(07)	최종숙(72)	사회생활학과	이상은(02)	송영희(77)	김규연(11)
김다은(07)	이숙자(73)	박정복(57)	이진경(03)	임한나(78)	김정아(11)
최은정(07)	지덕옥(75)	서금숙(59)	하승미(03)	김이화(79)	김혜원(11)
서현진(08)	정문숙(77)	유명자(60)	구자현(04)	선해영(83)	박연정(11)
김미현(09)	안경숙(78)	최용혁(60)	김주영(04)	조경희(86)	서인혜(11)
안지현(09)	안경숙(78)	김영희(61)	노은언(05)	송현주(87)	선주희(11)
김민희(10)	임화영(82)	이선희(61)	김계리(06)	박경희(88)	신 진(11)
이지윤(10)	김은정(93)	조연수(61)	이미소(06)	박인숙(88)	윤선미(11)
한정이(10)	이은령(95)	강혜온(63)	차경운(06)	손지현(89)	이영주(11)
황다미(10)	민경선(00)	이미경(63)	강지혜(07)	송화숙(89)	이현정(11)
김나영(11)	황정화(05)	조청자(63)	이원영(07)	윤은경(89)	임선정(11)
특수교육과	박선영(06)	박우연(65)	권민혜(08)	김송주(92)	최 용(11)
김인영(75)	양혜현(06)	신순주(65)	권주희(08)	김현미(92)	황하지(11)
최주희(82)	이주연(06)	권순경(66)	박소영(08)	박균하(94)	김윤정
김별주(86)	배미류(07)	양인숙(66)	신영재(08)	박소연(98)	이은주
최현진(88)	김설경(08)	최금순(67)	안혜인(08)	공지현(02)	수학교육과
임영자(90)	김주연(08)	성봉기(68)	양인명(08)	곽이영(05)	송순기(64)
홍여령(02)	최세영(08)	김지연(69)	오인영(08)	조달님희(06)	문봉선(76)
김유미(05)	강민아(09)	함인숙(69)	이지연(08)	강선지(07)	양유경(78)
이새롬(05)	김수아(09)	김숙자(70)	이진아(08)	김홍진(07)	김정열(80)
문수경(06)	김현아(09)	민래희(70)	하준정(08)	백지희(07)	반진윤(83)

김정미(87)	보건교육과	차명희(66)	문지선(03)	조세영(08)	장혜원(10)
김정윤(88)	신정례(67)	이양자(67)	지수정(03)	강민정(09)	조혜정(10)
이경아(95)	장점숙(69)	박현순(69)	남인희(04)	김태은(09)	차준영(10)
박지영(96)	안경진(71)	최윤숙(69)	박희진(04)	노숙영(09)	최명주(10)
서혜정(97)	조수열(71)	구정숙(70)	이보영(04)	노예은(09)	최수현(10)
김종호(01)	함추희(72)	윤혜숙(70)	강혜미(05)	노혜미(09)	하인경(10)
김은진(04)	이주순(73)	박관순(72)	송지원(05)	배진아(09)	김가영(11)
정아연(06)	이선숙(74)	신순자(74)	이다혜(05)	유성예(09)	김근영(11)
김수현(07)	장은숙(74)	김선옥(75)	이상은(05)	유영아(09)	김수민(11)
서경아(07)	김혜경(76)	윤정희(75)	최재희(05)	윤인아(09)	김수산나(11)
정빛나(07)	오명신(78)	이효숙(77)	강정화(06)	이은규(09)	김연중(11)
김가혜(08)	임찬희(78)	조근배(77)	김지현(06)	전근정(09)	김인혜(11)
박선희(08)	신경애(80)	문미란(80)	김현민(06)	조현수(09)	김주미(11)
안신희(08)	부원정(94)	이현혜(80)	박정희(06)	진승연(09)	김희란(11)
유하나(08)	송현종(95)	박소현(82)	송은지(06)	강수경(10)	김희진(11)
이정현(08)	김지연(01)	정현미(82)	윤신실(06)	김소영(10)	김희진(11)
정혜윤(08)	김수현(03)	권순교(85)	이은송(06)	김예린(10)	나보배(11)
김은수(09)	한경희(03)	장인애(86)	이정미(06)	김지아(10)	노현주(11)
남수현(09)	불명(07)	유명주(87)	정유진(06)	김지영(10)	문서영(11)
박현주(09)	김사라(10)	박은숙(88)	정희진(06)	김진경(10)	박슬기(11)
서지영(09)	서국화(11)	양옥희(90)	강지니(07)	김진희(10)	박영천(11)
현지혜(09)	이미진(11)	박신애(92)	고성민(07)	김태연(10)	안나현(11)
김정은(10)	정은주(11)	최은영(94)	공도란(07)	김태연(10)	윤혜진(11)
김주은(10)	국어교육과	김은주(95)	김지은(07)	김혜민(10)	이세라(11)
김지혜(10)	인지선(10)	김지후(97)	박종화(07)	김호정(10)	이우경(11)
박지혜(10)	최예슬기(10)	최태은(98)	송인영(07)	박서영(10)	이윤아(11)
김도희(11)	백소영(11)	민성원(99)	이민정(07)	박정원(10)	이진영(11)
김지현(11)		이지연(00)	이지연(07)	박지영(10)	이현아(11)
김지혜(11)	법과대학	장은영(00)	이충희(07)	박현경(10)	최정민(11)
박민아(11)	법학과	정영심(00)	장숙경(07)	송수경(10)	최지우(11)
박정윤(11)	윤후정(55)	곽은선(01)	장윤영(07)	신미나(10)	하유라(11)
배정현(11)	김정자(56)	노미현(01)	전은혜(07)	안유민(10)	함민주(11)
심소연(11)	성보영(57)	신승희(01)	지혜롬(07)	양희원(10)	송숙영
오지혜(11)	정연순(60)	정인모(01)	최민경(07)	유나영(10)	
이은지(11)	서정옥(62)	김영아(02)	한민정(07)	윤지혜(10)	경영대학
이정은(11)	김송자(63)	김지선(02)	강수연(08)	이가령(10)	경영학과
이지은(11)	김행자(63)	박세정(02)	권용주(08)	이수미(10)	김옥순(69)
함은아(11)	공정자(65)	신정훈(02)	나재은(08)	이정희(10)	이영애(69)
황보름(11)	권성자(65)	가선희(03)	신진민(08)	이지선(10)	고현혜(71)
이승아	노윤진(65)	김보영(03)	이애성(08)	임민정(10)	정증자(74)
이현숙	유희숙(65)	김영주(03)	전차령(08)	임정란(10)	김진옥(76)

김영선(78)	김리후(10)	박명숙(53)	이종민(80)	고은애(08)	홍정옥(57)
박경희(78)	박은영(10)	조성매(53)	백예란(81)	김다은(08)	곽순덕(58)
김미숙(81)	백형운(10)	박영숙(58)	김연신(82)	김문정(08)	김진숙(58)
이봉학(81)	서명지(10)	최옥희(59)	임선영(82)	유명희(08)	박정숙(58)
문수정(84)	윤유정(10)	이혜경(60)	전영미(82)	김지혜(09)	구자옥(59)
정희경(86)	이나래(10)	차순자(60)	김효신(84)	권영애(10)	김효영(59)
김자신(89)	이은정(10)	권태희(61)	안혜선(84)	이민경(10)	문희(59)
이윤정(91)	정수진(10)	김옥순(61)	유동원(84)	안다영(11)	민병옥(59)
정지영(92)	채주경(10)	이정식(63)	이승희(84)	유은정(11)	신가균(59)
구성원(95)	황정아(10)	이현숙(64)	정은숙(84)	이민경	윤혜숙(59)
김유미(96)	김민선(11)	조성인(64)	최은진(88)	약학대학	
김현순(96)	이수정(11)	오양자(65)	이향주(90)	이영애(59)	
우연화(99)	정지연(11)	방희연(68)	이선화(91)	황동수(59)	
이승윤(99)	조아영(11)	이규현(68)	유진아(93)	강보길(60)	
구효정(01)	국제사무학과				
김수옥(01)	조계숙(73)	이명숙(70)	문상애(95)	이항구(50)	고순활(60)
박소연(01)	김지은(79)	지현숙(70)	심윤수(01)	장현숙(50)	권혁순(60)
이정민(01)	양정화(80)	김혜진(71)	서유진(06)	전효심(50)	김보근(60)
김경선(05)	임은식(81)	김화숙(71)	조연실(06)	김경원(51)	김선애(60)
김새련(05)	정혜영(98)	전지숙(71)	권지영(07)	김순자(51)	김용호(60)
김현정(05)	홍정혜(99)	우경숙(72)	양나래(07)	임희숙(51)	김은숙(60)
조수희(05)	백진현(02)	서현숙(73)	양혜린(07)	전예실(51)	민정인(60)
김수진(06)	양보람(05)	정화순(74)	이다영(09)	최귀파(51)	박란서(60)
노계연(07)	이선주(05)	김원혜(75)	최윤미(09)	한사숙(51)	박수영(60)
민지옥(07)	이은진(06)	박경순(75)	최화영(10)	김순희(54)	변양자(60)
이수정(07)	신서원(07)	이경자(75)	간호과학대학		송창근(60)
이정명(07)	이희원(09)	이덕용(75)	김재윤(55)	양창균(60)	
이지은(07)	전예은(09)	이은영(75)	김진명(55)	윤계임(60)	
한현주(07)	김보배(10)	정순미(75)	유인숙(58)	이병렬(60)	
김소연(08)	김애진(10)	조민희(75)	오춘환(55)	이상기(60)	
박신영(08)	김지현(10)	조종남(75)	전응조(60)	박찬옥(56)	이옥순(60)
박지수(08)	심지혜(10)	주수자(75)	김성실(62)	박홍순(56)	이종섭(60)
서지현(08)	유 은(10)	장애인(76)	남상옥(62)	김순명(57)	이주화(60)
신정원(08)	김지연(11)	황임령(76)	하영수(68)	김원숙(57)	이혜생(60)
최미아(08)	오은별(11)	김경한(77)	조순옥(74)	김정순(57)	장현숙(60)
고현지(09)	의과대학				
이송은(09)	의학과				
임혜민(09)	송선희(77)	유남수(77)	표정호(83)	이무경(57)	한영숙(60)
장수경(09)	권분이(51)	이용주(77)	지유하(01)	이영숙(57)	홍애수(60)
장수경(09)	김애주(51)	이혜성(77)	김정영(05)	이정경(57)	황명순(60)
조가람(09)	박숙정(51)	이진숙(78)	조아라(06)	이정란(57)	고경희(61)
			임해진(07)	이정숙(57)	고화영(61)

김덕희(61)	김명자(66)	김지혜(07)	백명진(44)	발달학과	이려진(08)
김옥녀(61)	김화수(66)	양지혜(09)	이혜자(45)	서경선(72)	조인희(08)
김종옥(61)	문혜자(66)	임효진(09)	임정재(46)	김현숙(73)	조사라은하(09)
김춘숙(61)	박해영(66)	정재은(09)	전영옥(46)	박웅임(86)	구서영(10)
오영자(61)	이강희(66)	민수빈(10)	이혜석(49)	김선녀(88)	김은비(10)
윤용봉(61)	강원사(67)	서희원(10)	이병립(55)	지연경(89)	김현욱(10)
이장순(61)	김순화(67)	최지혜(10)	정성혜(56)	김유리(95)	최선(11)
전인순(61)	김지영(67)	허은지(10)	최옥현(57)	박민정(99)	식품영양학과
정예경(61)	김진희(67)	구효정(11)	김옥진(58)	이두령(02)	곽영섭(61)
정태숙(61)	박경자(67)	이수현(11)	박종오(58)	서진선(04)	장인상(66)
강혜식(62)	석귀덕(67)	장혜은(11)	김선영(59)	정현주(05)	구소원(69)
김순영(62)	이평숙(67)	이경재(60)	김형복(59)	황빈아(07)	장선재(69)
김은자(62)	황혜자(67)	황명순(60)	윤영자(60)	노우정(08)	우정애(70)
서병원(62)	김경자(68)	조수남(62)	이선종(60)	이주희(08)	전정숙(71)
송미래(62)	박순례(68)	한명희(62)	전은수(60)	양희정(10)	박경임(73)
유병숙(62)	백형혜(68)	박정숙	박준교(61)	김정희(10)	송현(74)
이귀자(62)	오세종(68)	한영숙	불명(61)	백민희(10)	이혜양(79)
이명자(62)	전영대(68)	제약학과	계명혜(63)	이지은(10)	최진자(80)
이민복(62)	박성숙(69)	최숙(73)	박영혜(63)	함선유(10)	박은영(82)
이정자(62)	성양경(69)	오용순(75)	박혜경(63)	어수정(11)	이경애(82)
장명숙(62)	신정희(69)	이숙희(75)	배옥재(63)	유현정	정조인(83)
정영순(62)	유은아(69)	최의경(75)	이영예(63)	의류직물학과	장비귀(84)
구신자(63)	권성숙(70)	강옥수(76)	김윤자(64)	김보옥(48)	이윤경(90)
김수자(63)	박노신(70)	권영옥(76)	예경혜(64)	박윤정(55)	정은경(90)
윤화주(63)	정세정(70)	박영미(76)	문숙희(65)	권정숙(56)	강준영(96)
이정의(63)	정선희(71)	최정신(77)	박정자(65)	김유겸(70)	김정연(04)
차영화(63)	고명순(72)	손무인(78)	이갑희(66)	이정임(71)	박성희(04)
홍강수(63)	김선희(72)	김영미(79)	오매성(66)	김백용(72)	양승완(06)
구선자(64)	신영숙(73)	권혁란(80)	조규화(66)	이동주(75)	이진원(08)
김기방(64)	신정애(75)	김혜연(80)	김행자(67)	홍중옥(77)	이정은(09)
김송윤(64)	박민혜(77)	황경수(88)	최민자(67)	이숙희(79)	최정혜(09)
김정경(64)	민명수(79)	조선희(95)	최민자(67)	김정화(96)	정지희(10)
김정자(64)	민영수(79)	임은형(96)	김광숙(68)	박희숙(02)	김경아(11)
백정자(64)	이미애(79)	서은영(99)	김대순(68)	최윤정(03)	
송경자(64)	최길자(79)	손지원(99)	김부순(68)	김효진(06)	국제학부
송후자(64)	한동주(81)	김지혜(05)	오덕영(68)	이수정(06)	국제학과
정애영(64)	김현림(83)	송은영(08)	배계현(68)	차혜인(06)	장유진(05)
정태연(64)	지선희(83)		강명희(69)	한준화(06)	최수안(06)
김덕길(65)	권진현(05)	생활환경대학	박홍순(72)	김남경(07)	이지은(07)
최영순(65)	김상미(05)	가사, 가정과	김선자(74)	이슬(07)	송재영(08)
고양자(66)	이효선(06)	박승남(34)	소비자인간	좌희원(07)	김민정(09)

황혜숙(10)	교육대학원	통번역대학원	노경혜	이선화	순천지회 380,000원
이재영(06)	임마성(87)	김다정(05)	문정숙	이소영	김연자(가정 59)
임은미(06)	전성미(00)	김윤희(07)	민경아	이순명	강초례(가정 63)
박보미(10)	강윤정(03)	은지명(10)	박도연	이신덕	조정자(국문 63)
이예지(10)	박지윤(04)	이미경(11)	박보연	이용주	조영숙(화학 67)
한정수(10)	이혜주(04)	최승민(11)	박보연	이화자	김경인(동양 74)
유연희	한진아(07)	이현아	박복자	이하늘	홍선란(교육 74)
	정혜선(08)		박선영	이혜림	고명선(영문 76)
대학원	남신해(09)	최유정(99)	박은영	이희연	박금희(물리 76)
심희옥(85)	박유안(09)	박후정(07)	박정민	임수연	최영자(사회 77)
김희진(92)	이윤희(09)	이 연(09)	박정아	장경선	김명석(작곡 79)
허유정(01)	조 희(09)	류재영(10)	박지성	장윤선	나연희(경영 79)
최원영(02)	김은경(10)		박진애	정남숙	황경숙(체육 79)
권휘련(05)	유소정(10)	이경진(10)	박희정	정명주	서혜석(영문 81)
김상미(05)	윤현정(10)		백령자	정민종합상사	유숙영(법학 85)
전희선(07)	홍선경(10)	김동희(05)	백영자	정숙영	윤지연(간호 85)
김지영(09)	고유미(11)		서정우	정영주	고선영(불어교육 86)
우지은(08)	김다사랑(11)	김은경(05)	서지혜	정윤정	최정선(신방 87)
나윤희(09)	김시온(11)		손미경	조근아	신경화(조소 88)
장경희(09)	김은숙(11)	학과, 년도 미상	손경순	조성매	김수진(경영 91)
홍미기(09)	나윤선(11)	김영애	손경자	조양순	전주지회 480,000원
노보혜(10)	심차나(11)	김창희	손은주	조영주	김성실(가정 49)
윤희숙(10)	천지숙	이경자(68)	송 영	조은혜	차인자(영문 50)
이유영(10)		구경희	신경자	조 향	이순례(수학 59)
최수연(10)	고인숙(04)	권명진	신용실	주선숙	이주자(사생 67)
나연이(11)	박만자(04)	권옥자	안소연	차성은	장 숙(교공 69)
박명희(11)		김문자	안소연	최경숙	안명옥(심리 70)
박혜윤(11)	양영민(02)	김병선	오정립	최성자	이전숙(의직 70)
이영화(11)	박혜신(10)	김소형	오정순	최윤정	기영식(국제사무 73)
이희진(11)	이영아(10)	김수진	오춘란	최일연	손숙희(작곡 73)
정하윤(11)	전혜성	김순이	오흥숙	최진자	이현실(심리 73)
진현신(11)	조현선	김애자	유성희	최한숙	오경안(법학 75)
조영서	경영대학원	김영순	유연희	최희성	유순금(법학 77)
최진자	김현정(07)	김은경	윤순자	한명선	정혜숙(영문 77)
국제대학원	장보희(09)	김은경	이가영	한명옥	정순임(식영 85)
박영금(03)	최형금(10)	김철순	이경자	한영숙	최희윤(불문 85)
송미상(06)	우정민(11)	김초원	이군수	홍경희	나수영(의직 86)
오현정(10)	박수미(11)	김현아	이다영	홍애자	알라스카지회 180,000원
심은지(11)	김아영	김형경	이명자	기타불명 181명	아틀란타지회 1,115,097원
오윤정(11)		김혜영	이미류	대구지회	신시네티지회 450,000원
황희주(11)	윤은주(08)	노경혜	이미숙	600,000원	도미영(약학 56)

김영채(영문 59)	
권숙자(의학 67)	
김진희(기악 68)	
백미애(가정 68)	
우영희(가정 68)	
김혜선(외교 69)	
배영자(신방 69)	
이현숙(간호 69)	
황은신(생미 70)	
강순명(약학 71)	
변혜경(조소 71)	
하현숙(법학 71)	
지민정(사회 85)	
박진혜(전산 95)	
내쉬빌지회	207,741원
북텍사스지회	336,789원
뉴욕지회	560,283원
올란도지회	552,818원
세인트루이스지회	330,000원
황선임(사대 59)	
조현순(영문 60)	
최경선(영문 61)	
정홍순(성악 62)	
이수자(가정 63)	
한정자(교육 63)	
최길자(화학 65)	
정선주(성악 68)	
선재숙(의학 72)	
김혜영(간호 79)	
최혜영(생미 86)	

북가주지회 (2010년분)	558,260원
북가주지회	555,549원
몬트리올지회	347,778원
박복길(교육 60)	
박완선(생명 62)	
전숙자(사생 65)	
김광주(교육 67)	
이수형(신방 67)	
민경희(경영 68)	
손봉희(영문 68)	
한현숙(가정 69)	
김연숙(무용 72)	
임명애(국문 73)	
이채화(무용 76)	
백희준(수학 84)	
김명원(수학 92)	
공복자(실내장식)	
김순일(의학)	
김선아	
토론토지회	589,543원
멜버른지회	266,493원
시드니지회	600,000원
뉴질랜드지회	356,000원
이태리지회	229,800원
독일지회	460,000원
홍콩지회	436,330원
방혜자(교육 66)	
이명희(무용 68)	
임미도(관현 81)	
정도경(사복 81)	

홍지수(신방 86)	
김유경(종음 89)	
한유미(보교 90)	
황정인(전산 90)	
이소영(사생 91)	
한정화(섬예 94)	
임수화(섬예 97)	
송수희(신방 98)	
이재명(신방 98)	
김수지(정외 99)	
박현희(정외 99)	
자카르타지회	234,400원
일본지회	320,000원
사사끼헤미(문과 42)	
김정숙(체육 50)	
강연숙(가정 53)	
지혜선(약학 61)	
김명화(음악 63)	
김윤자(국문 63)	
유정일(가정 63)	
김용원(문정 67)	
구덕자(의학 69)	
정태영(미술 69)	
고정희(미술 74)	
정태경(사복 75)	
최순희(사학 78)	
손영란(법학 80)	
박경란(무용 90)	
이목미(유교 93)	

* 2011. 1. 1~12. 29까지 연회비
납부자 명단입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